

〈재정보강〉

내년 1분기 140조+21조 투입…경기 불 자핀다

2017 경제정책 방향

모든 가용재원 내년초 투입
성장률 0.4%P 낮춰 2.6%
외환위기후 첫 2%대 전망
정치 리스크 땐 낮아질 수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내년 초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만 재정집행 약 140조 원을 조기에 풀고 21조 3000억 원의 재정보강도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내년도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 판단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면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기준 3.0%보다 0.4%p 대폭 낮춘 2.6%로 잡았다. 정부가 2%대 경제성장을 제시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8%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조기대선 등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집행 효과 0.2%p 가 더해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상성장률도 실질성장을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올해보다 0.2%p 내린 3.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3만 명이나 감소한 26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저작폭 확대로 올해보다 120억 달러나 감소한 8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에서

0.6%p 뛴 1.6%로 예상하면서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14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분기 집행 계획을 잡은 140조 원에는 중앙재정(연간 287조 원), 지방재정(173조 원), 지방교육재정(23조 원) 등에서 각각 투입된다. 이 중 중앙재정에서 31%인 89조 원이 조기에 투

입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순수사업비)에서 각각 45조 원, 6조 원이 경기 활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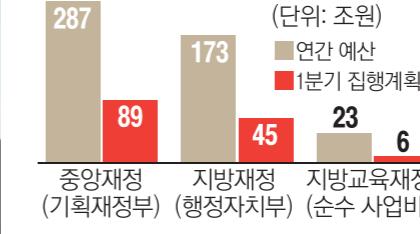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정부는 21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재정보강 중 일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집행 140조 원과 함께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

2017년 경제전망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2.6	2.6
경상성장률(%)	4	3.8
취업자증감(만명)	29	26
고용률(15~64세)	66	66.5
소비자물가(%)	1	1.6
경상수지(억달러)	940	820

내년 재정집행 및 1분기 계획



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 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조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7조 원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산업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정책금융 8조 원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집행과 별개로 21조 3000억 원의 재정보강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허창수 회장·이승철 부회장

"내년 2월 총회서 사퇴할 것"

후임자 없는 전경련

허창수(사진 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이승철(오른쪽) 상근부회장이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사임한다. 잇따른 회원사 탈퇴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전경련은 후임자 선정에도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28일 회원사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주도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은 "최근 전경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께 많은 격려와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빠른 시일 안에 회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돌아오는 (2월) 정기총회까지 힘을 보탠 뒤 저는 회장직을 물러나고, 전경련을 이끌어주실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부회장도 2월 정기총회에서 사임한다. 전경련은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허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의사를 밝히고 회원사들의 의결을 받으면 연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반 사임을 결정한 것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계에서는 전경련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 그룹의 이들이 가속화될 경우 전경련은 사실상 존립 목적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허창수 회장 후임자 찾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전경련은 과거에도 회장 선임 때마다 심각한 구인난을 겪은 바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 19

산업부 무역투자실



1970~80년대 상공자원부 상역국 시절부터 수출 드라이브 시대를 이끌어 온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고 있다. 통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기능 등 업무가 확대된 무역투자실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수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기업의 해외 사업 협력과 신규 유망 품목 발굴, 수출 전시회 주관, 무역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오현 회장 ▶ 8 김도진 은행장 ▶ 14

WIN 콘퍼런스 ▶ 10

자율주행차 시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동양생명, 대주주 中 안방보험 호텔에 수상한 대출

해외부동산 담보 3000억 대여
과도한 신용공여 동반부실 우려

동양생명이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 이 인수한 호텔에 3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했다. 해외투자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층의 설명이지만 안방보험 계열사 지원에 동양생명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양생명은 27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미국의 뉴산타모니카비치 호텔(New Santa Monica Beach Hotel)에 2억 7500만 달러(약 3334억 원)를 금전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2일까지 5년이다. 대여 형태는 산타모니카 호텔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이자는 4.7%(4.45%+1개월 리보)로 책정했다.

주목할 점은 산타모니카 호텔은 올해 3월 중국 안방보험에 사들인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당시 안방보험은 산타모니카 호텔 등을 소유한 스트래티지호텔스앤리조트를 인수했다.

즉 동양생명은 대주주가 인수한 1년도 채 안 된 물건에 수천억 원을 선뜻 내준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3000억 원 대여금은 최근 동양생명이 안방그룹홀딩스 등 안방보험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 6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에 6000억 원을 투입한 후 다시 이의 절반을 계열사로 빼낸 셈이다.

동양생명이 담보에 대한 가치평가, 리스크평가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 명시된 대주주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일반계정

의 2%)를 넘어서었거나 국세청이 고시한 법인세법 이자율을 어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는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이 있다. 신용공여 관계로 얹힐 경우 계열사가 어려워지면 동양생명도 동반 부실화된다. 금융당국에서 계열사 간 대출과 신용공여에 제한을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해외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채권과는 달리 공정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많아 다른 보험사들은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한다고 밝혔을 때 일각에서는 안방보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동양생명을 계열사 자회사로 활용한 '먹튀'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적정하게 검토해 금전대여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공정위 VS 퀄컴…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나

공정위, '특히 갑질'에 과징금 1조 부과…퀄컴 "서울고법에 소송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 통신칩셋 업체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견서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퀄컴과 계열사 2곳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위법행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 의견서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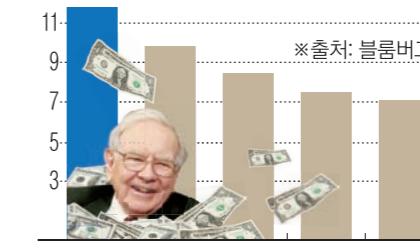
이 같은 위법행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 의견서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1조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과징금 산정은 퀄컴이 부당행위로 2009년부터 7년간 한국에서 올린 약 38조 원의 매출액에 2.7%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정명령으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물론 국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전 세계 200여 개 휴대폰사, 칩셋 사업자들이 퀄컴과 재협상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에 이어 한미통상마찰로 번지게 되었다.

올해 소위 폐돈을 번 억만장자 대다수가 '트럼프 효과'를 누린 미국인들이 양창균 기자 yangck@

올해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억만장자 5명

(단위: 10억 달러, 27일 기준)



었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억만장자 5명 중 4명이 미국인이다. 세계 최고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의 순자산은 915억 달러로 연초 대비 98억 달러 늘어나 버핏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뒤이어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최대 세일업체 콘티넨탈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회장이 올해 가장 큰 돈을 번 인물 3~4위에 꼽혔다. 이들 모두 미국 국적이다.

프랑스 국적의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올해 순자산을 71억 달러 늘려 자산 증가 순위 5위를 기록했다.

버핏처럼 올해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억만장자들은 77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를 철폐해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들의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고용 늘리는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무역금융 229조 책정



경제 활력 제고

정부가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액공제와 수출지원 확대 카드를 다시 뽑았다. 기업의 축적된 여력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해외진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세제·금융 지원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 대기 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11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올해 80조 원에서 내년 85조 원으로 늘려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5~10%)도 신설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 협정에서 증경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역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 역·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켰다.

고용창출 투자 기업 세액 공제율 한시적 2%P 올려 투자확대 유도
국내유턴 중견기업에도 세제혜택

무역금융 지원 올해보다 8조 늘려
美보호무역 대응 원자재 교역 확대

셰일가스 연간 280만톤 도입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1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1만2900기를 확충한다. 공공주택과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 거점에 충전기 1만2700기를 추가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를 200기 설치한다.

올해 누계 1만100기에서 2배 이상 늘려 내년 말까지 2만3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와 공항,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서비스를 추가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성과 친환경성, 투자효율성 등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서비스·인프라 등 유망 부문 중심으로 옮겨보내 8조 원 늘린 229조 원으로 책정했다. 해외온라인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26조 원으로 옮겨보내 2조 원 늘리고 이란·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도 확대(신규 한도 10억 달러 설정)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28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원자재 교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또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기업에 입찰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을 2조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유망 신흥국 수주를 위해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수출금융을 5조9000억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은 5000억 원 규모로 신규 운용한다. 디지털은행 신탁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업 발주와 수주 현황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9월 EDCF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내년도 부문별 활력제고 방안

투자 인센티브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년간 2%P 상향 (대기업 1%)
- 11개 신산업 분야 R&D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확대
- 신산업 기술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5~10%)
- 정책금융 집중 공급 (2016년 80조원 → 2017년 85조원)
- U턴기업 지원체계를 증건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

친환경 투자 촉진

- 전기차 충전인프라 1만2900개 확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수출지원 강화

- 무역금융 지원 규모 8조원 확대 (2016년 221조원 → 2017년 229조원)
-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확대 (24조원 → 26조원)
- 신흥시장 전대금융 확대 (신규 한도 10억 달러 설정)

전략적 해외진출

- 인프라 시장 진출 금융지원 2조2000억원 확대



건설 등 업종도 특별 정밀 재무진단 부동산시장 둔화 대비 선제적 관리



취약업종 구조조정

군함 조기발주 조선 수주절벽 해소

한국선박회사·펀드 1분기 자금지원



정부가 건설 등 여타 업종도 정밀 재무진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 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 성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조선은 내년 발주 예정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설계 전문회사를 1분기 안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에 1분기에 자금지원을 하고 신규 발주도 지원한다. 철강·유화는 고부가·첨단제품에 대한 R&D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 등 여타 업종도 특별 정밀 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도 5대 구조조정 업종이었으나 최근 경기가 좋아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 매각을 위해 캠코가 자산 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 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정리 계획안(Pre-Packaged Plan) 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업재무인정 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 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지나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권 참여 목적의 자본투자뿐만 아니라 부실채권·부동산 등에도 투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행정기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판교 창조경제밸리,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키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수립해 핵심기술 개발, 시

'전략위' 구성… R&D 로드맵 수립
SW 중점 교육기관 20곳으로 늘려

장기반 조성과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 벤처·창업 기업도 집중 유지한다.

맥킨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30년까지 매출·후생증가 등 최대 46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내년 4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은 올해 3147억 원에서 내년 4381억 원으로 39.2% 확대됐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SW융합교과 중심학 교와 SW중심대학을 올해 14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실시한다.

금융시장 혁신 방안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 간 융합을 위해 2단계 판테크 발전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핵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스토리지로서의 뛰어난 안정성 그리고 성능.
인텔 CPU에 최적화된 호환성.



게이머를 위한 선택 인텔 SSD 750 시리즈

인텔 SSD 750 시리즈는 기존 SSD와 다르게 읽기 2,200MB/s, 쓰기 900MB/s의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보급형 시장의 선두주자 인텔 SSD 540s 시리즈

인텔 SSD 540s 시리즈의 빠른 성능으로 생산성의 속도를 높이십시오. 인텔의 최신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으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금융권 대출도 조여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로 묶는다



서민 주거 안정

정부가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잡기로 했다. 대신 서민금융을 2조3000억 원 늘리는 등 부동산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올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25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늘었다. 이를 한자릿수로 안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내년 42.5%에서 45%로 상향하고 분할상환도 50%에서 55%로 목표치를 확대했다. 올해 9월까지 대출이 39조 원으로 늘어난 제2금융권도 내년에 분할상환한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총 2조3000억 원 확대한다.

4대 서민정책 자금인 미소금융, 헛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5조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리고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한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해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소요비용도 약 200만 원 절감해주기로 했다.

여신 가이드라인 상호금융권 확대
서민금융 공급 2조3000억 원 늘려
4대 서민정책 자금 규모 7조 원으로
채권추심 규정도 강화 채무자 보호

투기·분양 과열땐 지역별 맞춤대응
공공매입·전세임대 4만→5만호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정부시장 과열 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정약 1순위 지적 제한 등을 추진하고 반대로 매매거래 위축 시 건설·정가 규제 및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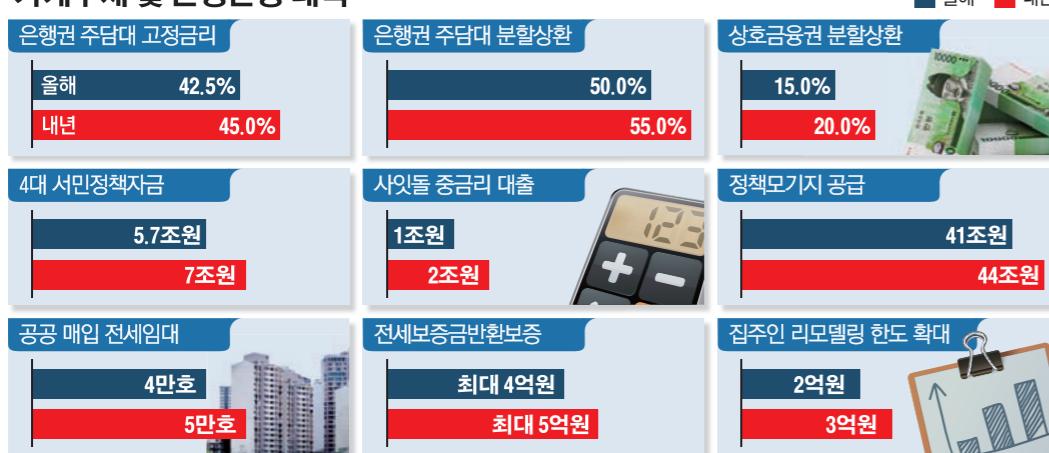
공공 매입·전세 임대를 현재 4만 호에서 5만 호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 장치를 확보하겠다.

또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현재 0.15%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도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과거보다 낮은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가계부채 및 민생안정 대책



맞벌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출산혜택, 두 자녀 중심으로 재설계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활로봇 등 고령 친화산업 육성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 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만혼'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해 0.7%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혜택이 '세번째 자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와 실효성을 심층 평가해 효율적 사업추진 방향을 강구,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범위를 최대 8억 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80%에서 90%로 늘린다.

출산휴가 급여 인상	올해 월 135만원	내년 월 150만원
결혼·출산인센티브	올해 세자녀 중심	내년 두 자녀 중심
혼인세액공제 신설	1인 50만원	맞벌이 100만원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신청할 경우 선택적으로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실적이 높은 기업은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률을 주기로 했다. 최대 90일간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만 원을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 분기별로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화 준비를 위해 건강관리·요양·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 친화형 주택 등을 포함하는 고령 친화산업 발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테스트와 비자 체계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노후 경유차 교체시 6월말까지 개소세 70% 감면



내수 활성화 방안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승합·화물차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규제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고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캐드카드 선택제 확산 등 골프장 규제를 개선하고,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

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도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 3억으로
캐디선택제 등 골프장 규제 개선
설 전에 김영란법 소비위축 대책

법을 점검해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설 연휴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농축수산물 유통업, 회화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명절 전후 공영홈쇼핑 집중 방역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저리로 응자해 준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건설해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 자부심이 경감될

전망이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와 차주가 다르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약 8600가구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베트남은 작년보다 55%가 늘어난 25만 명이 방문했고, 인도네시아 30만 명(53.2%), 말레이시아 31만 명(39.1%), 싱가포르 22만 명(37.7%), 태국 47만 명(27.0%)이 각각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밖에도 남해안에 광역관광로트를 개발하는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해 국내 관광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한다.

곽도훈 기자 sogood@

Solution Partner



당신이 꿈꾸는 것, 모두 화학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제품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당신의 앞선 인생과 함께합니다

LG화학

2017 경제정책방향

“리스크 관리·구조조정·일자리 창출” 구체계획 없이 동어반복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책발표 때마다 담은 단골메뉴 ‘또 재탕’

경기해법 없는 기준정책 답습… 4차 산업혁명 대책 로드맵 부실

“6개월 단기 아닌 1년 정책”이라지만 최근 국정훈란에 결국 ‘졸속’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기존 나왔던 정책을 재포장한 재탕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이미 발표한 경제정책을 수치만 늘린 대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 혼란으로 인해 급조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강조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이 때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고려해 시장변동성에 대비하고 외환전선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그대로 담겨 있다.

산업구조조정도 반복됐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부터 매년 단골메뉴가 됐다. 가계부채 관리도 근본적인 처방 대신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내용 역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와 차별점이 없었다.

민생안정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옮겨 놓았다. 골목 상권보호나 대·중소기업 성장협력 기반도 뚜렷한 해결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속이다.

미래 대비로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은 구체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미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4차 산업을 국가 어젠다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지만, 내년 4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이전보다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 배경에는 최근의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발생 이후 제대로 국정을 행하기 못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미지막으로 주재한 것은 지난달 10월 11일이다. 국정의 트로이카인 여당·정부·정의당(당정청) 라인이 중단됐고, 각 부처에서 행해야 할 주요 현안도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11월 초에는 유일로 부총리의 대체카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장을 내정하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골격을 그리고 살을 붙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임종룡 내정자와 어색한 동거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6개월짜리 단기대책이 아니라는 질의에 “아무리 국정이 혼란한 상태지만 6개월짜리 대책을 수립할 순 없다”며 “내년 한 해 추진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신규면세점 의혹 감사요구안

36인 체제 개헌특위 등 상정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투명

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표결한다.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

자 추가 선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면세점 특허심사 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 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

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구성안은 총 36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회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가 전날 자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권상정을 위해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당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불출석한 증인이 고발 조치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별금형에 그친다. 김의중 기자 zerg@

황교안 “재원 총동원해 경기보완”

(대통령 권한대행)

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야 한다”며 “수출회복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면서 “가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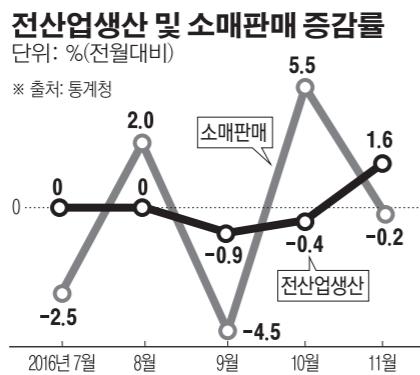
고개 드는 산업생산… 3개월 만에 반등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6% 늘었다. 3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 소비를 끌어오는 소매판매는 기저효과로 0.2% 줄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1.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7~8월 보합세 이후 9월 0.9% 감소했다. 10월에도 0.4%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바 있다.

11월 광공업생산은 3.4% 증가했다. 전자부품(3.0%), 석유정제(-2.4%)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11.4%), 통신·방송장비(30.6%) 등이 큰 폭으로 늘며 2009년 9월



11월 광공업·건설업 생산 늘며 증가 전환
소매는 전달 코리아세일페스타 여파로 줄어

11월 소매판매는 전달의 기저효과로 0.2%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内구재(0.6%)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가 줄었다. 10월 소매판매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5.5% 증가한 바 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1%)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5.9% 증가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인 건설기기는 건축(5.9%) 및 토목(7.5%)이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6.4%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주택, 기타건축 등 건축(4.1%)에서 증가했지

만 철도·궤도, 발전·통신 등 토토(-47.2%)에서 크게 줄며 감소를 견인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지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지는 모두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어운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자동차 파업 종료와 삼성전자 캘리시노트7 단종의 영향 악화 등으로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반등한 데 힘입어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며 “내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꽁꽁 언 제조업 기업심리… 내년도 ‘글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	전망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2016년 1월	65	68	68
2월	63	64	66
3월	68	68	66
4월	71	70	70
5월	71	71	73
6월	71	71	74
7월	72	70	72
8월	71	73	71
9월	71	73	74
10월	71	72	75
11월	72	73	72
12월	72	74	72
2017년 1월	—	71	72

※ 출처: 한국은행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월 제조업 기업심리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향후 전망은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12월 업황BSI는 72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10월 71에서 11월 72로 1포인트 오른 후 두 달째 같은 수치다. 반면 전망 지수는 71로 전달(72)에 비해 1포인트 내렸다.

BSI란 기업이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그

이상인 경우엔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그 이하인 경우엔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로는 대기업이 80으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은 2포인트 내린 62를 기록했다. 수출기업은 4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다. 다만, 내수기업은 2포인트 내린 70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10포인트 오른 89를 기록했고, 석유정제·코크스는 6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 1차 금속도 77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4포인트 내린 74로 집계됐다.

차 효과로 자동차와 1차 금속이 개선됐다”며 “다만, 1월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전망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의 12월 업황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74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전망지수는 72로 지난달과 같았다. 숙박업이 68로 전달에 비해 9포인트 올랐고, 난방수요 증가로 전기·가스·증기 84로 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지도 89.9를 기록, 8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밟았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시기였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SI 전망지수가 9개월 연속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 이후, 최장 기간 100 지수 하회 기록이다. 남주현 기자 jooh@

2억1000만원 이하 입찰 실적제한 폐지 공공조달 진입 문턱 낮춘다

황대행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공공조달시스템 21년 만에 개편

민생경제 회복 320여 규제 완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중소상공인 공공조달 규제정비(국무조정실)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용역 조달시 조달 실적 기준 제한 폐지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 공급 조달 시 최저가 입찰제 폐지

소상공인·청년창업 애로개선(중소기업청)

·푸드트럭을 이용한 육외광고 허용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 사업장을 같이 쓰는 것 허용

·동일업종 재창업 기업도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

지역경기 및 출형규제 완화(행정자치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2~5층 설치 가능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 허용

임신부 출산전 검사비용 내년부터 절반으로 준다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평균 44만원→24만원 45.5% 줄어들어 조산아·저체중아 3년간 본인부담률 10%

새해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씩 인하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검사 비용이 해당된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줄어든다.

또 쌍둥이, 삼둥이 등 다胎아를 임신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다胎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

된다.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태어날 때 2.5kg 미만인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 때까지 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입원 진료는 출생 직후에는 본인부담 면제, 6세까지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외래 진료 시에는 성인 본인 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해 난임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잠복 결핵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원 개개인에게는 처벌이 없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에도 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근무자가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반복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다.

박은평 기자 pepe@

AI 여파…한산한 춘천 닭갈비 골목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강원 춘천시 명동의 닭갈비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까지 AI에 감염됐거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2719만마리에 달한다.

회사원 30명 중 1명은 '억대 연봉'

지난해 근로자 평균은 3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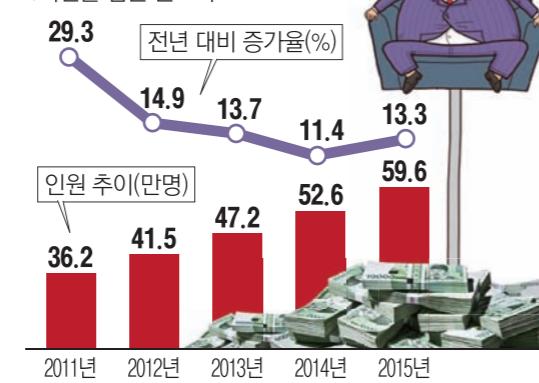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약 60만 명이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25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이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13.3%(7만 명) 늘어난 것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 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제액은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연봉 근로자 수 추이
201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45만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 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 원)이 서울(3635만 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서울시, 민간 전세임대 내년 입주자 2500가구 모집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25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지원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연 1~2%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

보증금 총액이 8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

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고, 500가구는 저소득(예비)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역별 형편을 위해 공급 물량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우선 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순수 저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대상이다. 보증금 한도는 2억1250만 원 이내, 반전세 월세는 40만 원 이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달 18~24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4월 7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lsae@

국민연금서 삼성으로…특검, 김재열 사장 소환조사

〈제일기획〉

이재용 부회장 처남…심리적 압박 의도
'최순실 대통령·복지부·국민연금' 연결
문형표 전 장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 일가 재산형성 과정 추적 나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이 29일 오후 특검 조사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에서 삼성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다음날 김 사장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박근혜 대통령·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라는 일련의 연결고리 확인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을 우선 소환해 삼성 측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은 김 사장을 상대로 최 씨 측을 지원하

관련에서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의 금전적 지원이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삼성 역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 45분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자가 된다.

특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최 씨 관련 인물 40여 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40명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 씨의 친인척과 최 씨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준 측근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 조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 조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특검은 40명 중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ine@



셀렙샵 에디션은 매시즌 에센셜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www.CJmall.com에서 '셀렙샵 에디션'을 검색하세요

CelebShop
edition



Everything is alive
Quantum

퀀텀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로

상상은 현실로 살아나고

집안을 넘어 도시 전체의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도로 위의 자동차는

주변 사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퀀텀으로 다다를 5G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다** 다르다

5G에 다다르다

‘특허료 숨통’… 스마트폰 가격 싸질까

‘특허 갑질’ 월컴 철퇴

국내 제조사 비용부담 줄어들지만 월컴 “불복소송” 반발 만만치 않아 단말기 가격 당장 내리긴 힘들 것

휴대전화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던 월컴이 1조 원이 넘는 과정금 철퇴를 맞으면서 삼성과 LG 등 단말기 제조 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컴이 원천기술 특허를 무기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연간 9조~10조 원에 이르는 과도한 특허료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월컴이 이런 불공정 거래를 통해 한국에서만 최근 7년간 3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1조300억 원의 과정금을 부과했다.

월컴은 그동안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공정위 월컴 조사 주요 일자

시기	내용	Qualcomm
2014년 8월	조사 착수	
2015년 3월	한국 월컴 혐의 조사	
3월~11월	삼성, LG, 인텔, 애플 등 주요 이해관계사 조사	
11월	월컴에 심사보고서 발송	
2016년 5월	심사보고서에 대해 월컴 즉각 의견서 제출	
7~12월	제재 결정 위한 공정위 회의	
12월 21일	월컴에 과정금 1조300억 원 부과 및 시정명령	

특허권 사용료 이른바 ‘월컴세’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10대 중 7대에 월컴의 통신용 칩이 들어가 있다. 월컴은 휴대전화의 핵심 통신 부품인 칩셋(chipset)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사용료를 칩셋이 아닌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사용료를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다 보니 고가의 스마트폰이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은

휴대전화 가격의 10% 수준이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은 제조원가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월컴은 특허료와 통신용 칩 판매 수익으로 지난해에만 251억 달러(약 30조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연간 5조~6조 원을 한국에서 벌어들인셈이다.

월컴은 인텔과 같은 경쟁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특허 사용료를 해도 이를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공정위는 특허를 보유한 월컴이 자회사인 월컴CDMA 테크놀로지스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통신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통신용 반도체를 팔 때 특허 사용권을 끌어 고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또 특허 계약을 맺을 때 월컴은 특허료를 받으면서 상대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 사용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명령대로 시행된다면 월컴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월컴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월컴이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시각도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무상으로 사용한 것도 부당거래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정금 상한액이 관련 매출액의 3%인데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2.7%(1조300억 원)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가 월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했고, 월컴이 다른 칩셋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 사용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명령대로 시행된다면 월컴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월컴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월컴이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시각도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대림산업, 이란서 2.3兆 수주 성과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 국내 건설사 역대 최대 규모

대림산업이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 재해 이후 글로벌 건설업체 가운데 이란에서 처음으로 2조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29일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LOI)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란 이스파한 오일 정유회사(EORC)가 발주했다.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수주했으며 총 수주금액은 2조3036억 원이다.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에 위치한 이스파한 지역에서 가동중인 정유공장에 추가 설비를 설치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은 설계·기자재구매·시공·금융조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 계약은 2017년 1월 중 체결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작공 후 48개월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앞서 대림산업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란에서 해외건설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1975년 5월 이란 이스파한의 군용시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이란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26건, 총 45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이란 내 실적이다. 이를 통해 이란의 국영기업, 민간 사업주 및 현지업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으로 향후 다양한 정유,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개보수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란 진출 이래 정유, 천연가스는 물론 다양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니로 vs 아이오닉 내수 판매 비교

니로	누적판매	1만7081대	9481대
	목표 판매량	1만8000대	
		1만5000대	11월 말 기준



친환경車 형제 ‘엇갈린 성적표’

‘아이오닉’ 11월 말까지 9481대

올 판매 목표치 63%밖에 못 채워
니로는 1만8000대 달성 무난할 듯

친환경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과 ‘니로’의 판매량을 놓고 현대기아차 내부에서 화비가 엇갈리고 있다.

29일 자동차산업협회 따르면 올해 1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은 11월 말까지 9481대(하이브리드 6916대 + 일렉트릭 2565대)가 판매됐다. 연초 잡았던 판매 목표치 1만5000대의 63%가량을 달성한 셈이다.

반면, 3월 말 개막된 기아차의 니로는 8개월 동안 1만7081대(하이브리드)가 팔렸다. 올해 목표치 1만8000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두 배 수준인 7만5000대로 올려 잡았다.

아이오닉과 니로는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전용 모델로 만든 차다. 같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을 사용했다. 우선 아이오닉의 복합연비는 1ℓ당 22.4km로 국내 출시된 차량 가운데 최

고 수준이다. 미국 시장에서 연비 ‘왕좌’에 있던 토요타 ‘프리우스(1ℓ당 21.9km)’도 제쳤다. 유럽 신차평가프로그램(유로 NCAP)에서 최고점인 별 다섯개를 받고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밸트지’가 실시한 비교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분위기가 달랐다. ‘니로’의 인기 비결은 최근 뜨고 있는 소형 SUV란 점이다. ‘니로’는 르노삼성 ‘QM3’·쌍용차 ‘티볼리’와 경쟁 구도를 이루며 젊은 세대의 생애 첫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형차 콘셉트인 ‘아이오닉’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실내 공간도 상위 차급 ‘스포티지’ 수준으로(총길이 2700mm) 확장, 고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복합연비도 1ℓ당 19.5km으로 우수하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1ℓ당 32.6km를 달려 연비 신기록을 달성, 국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 가격도 2000만 원대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두 차종이 경쟁모델이긴 하지만,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선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트럼프 취임식’ 초대 받은 우오현 SM회장

韓美 교류 위해 적극적 활동

스티븐스 전 주미대사와 각별

김승연·강호갑 회장도 참석



인사들과 각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월

년 위키(1889~

1950년) 전 초대

유엔 지상총사

령관의 용산동상 견립에도 참여했다. 우 회장은 현재 친동생인 우현의씨가 회장인 한미동맹친선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재계인사 중 대표적 미국인 김승연·한화그룹 회장도 트럼프 당선인 층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호갑·한국증권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한다.

김미정 기자 mjk@

LG, 태양광 발전 연계 ESS 공공사업 첫 수주

사업규모 20억…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에 3MWh 규모 ESS 구축

LG전자가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처음으로 공공 입찰사업을 따냈다.

LG전자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세종시에 운영 중인 1.6MW 규모 ESS ‘은하수 태양광 발전단지’의 전력품질 확성을 위한 ‘은하수 태양광 연계 ESS’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연계 ESS 사업은 날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일정치 않더라도 ESS에 저장된 전력으로 균일한 품질(출력)의 전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LG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3MWh 규모의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20억 원이다.

태양광 발전소 ESS 사업은 최근 정부

가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빠른 성장이 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태양광 발전소가 낮 시간(10~16시) 동안 ESS에 충전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에 대해 2017년까지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ESS가 없는 일반 태양광 발전소는 통상 0.7~1.5 수준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에 따라 ESS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수익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연계 ESS 시장의 표준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역량있는 중소 시공기업과 연계해 수익성 사슬레이션, 자체 공급 및 품질 보증, 신속한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서비스 ‘LG NeON클립’을 운영해 태양광 발전과 ESS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전자 ‘CES 2017’서 퀸텀닷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퀸텀닷 모니터 라인업을 공개한다. 커브드 디자인을 적용한 ‘CH711(27·31.5인치)’ 등의 퀸텀닷 모니터는 고해상도는 물론, 높은 색재현이 가능해 사진·영상 편집 등의 작업에 적합하다. 여기에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어떤 위치에서든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퀸텀닷 커브드 모니터 CH71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가스 ‘석탄 트레이딩’ 진출… ‘종합에너지기업’ 한발짝 더

2020년부터 고성그린파워에

9조6500억 규모 석탄 공급 계약
최장원 부회장 사업 다각화 결실

SK가스가 LPG 트레이딩·화학·신재생에너지·석탄화력발전에 이어 석탄 트레이딩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로써 SK가스를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최장원(사진) 부회장의 큰 그림은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SK가스는 고성그린파워에 9조6500억 원 규모의 석탄을 공급하기로 계약 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51년 4월 30일까지로 연

간 석탄 195만 톤을 공급하게 된다. 고성그린파워의 지분 19%를 보유

coupang TMON 위메프

덩치 커진 소셜커머스 ‘착한 경영’ 하시나요?

상반기 매출 작년보다 23% 증가
7~10월 월 평균 7% 고른 성장세

쿠팡 ‘마켓플레이’ 위메프 ‘신선생’...
오픈마켓 진출 차별화 마케팅 활발

일방적 정산절차·부당차별 취급 등
가맹업체 88% “불공정거래 경험”

소비 절벽에도 가성비를 앞세운 소셜커머스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는 6년째 적자 경영이지만 물류 투자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이며 미래를 위한 선제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오픈마켓은 21.5%, 소셜커머스는 23.8%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즌에도 온라인 쇼핑몰은 18.6%의 매출로 소비를 이끌었으며, 소셜커머스의 경우 7월 1.2%, 8월 15.4%, 9월 9.3%, 10월 2.3%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소셜커머스가 경쟁채널과 비교해 들쭉날쭉한 매출 추이에 매출 증가가 둔화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매출은 7.05%의 성장세를 보여 내년에도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특히 소셜커머스 모바일, 오픈마켓 진출 등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 9월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티몬도 관리형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자 상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지고 있다. 위메프도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신선생’이

김하늬 기자 honey@

흔족들 새해 목표는 ‘어학공부·다이어트’

티몬, 영어회화 프로그램 ‘스피킹맥스’
검색어 증가량 전달보다 575배 늘어

올리브영, 건강식품·운동용품 매출급증
AK플라자 ‘헬로 2017’ 통해 최대 반값



티몬에서 판매하는 운동용품. 사진제공 티몬

팍팍한 세밀 분위기 속에서 올해는 ‘흔자반의 시간’을 가지며 2017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연말, 소비자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까.

소셜커머스 검색 순위는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판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직접 검색을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본격적인 세밀이 시작되는 12월 셋째 주, 티몬의 검색 순위 TOP3에는 교육 콘텐츠인 애나투파카지와 스피킹 맥스가 이름을 올렸다.

티몬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월 대비 검색어 증가 수치를 살펴본 결과, 스피킹맥스와 애나투파카지는 각각 575배,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나투파카지는 하루 10분의 짧은 강의로 학습 효과를 낸다. 지난 2014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영어 왕초보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강의와 양질의 콘텐츠로 고객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스피킹맥스는 리얼리티 영어회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스피킹맥스는 올 한 해 티몬의 일일 상품 매출 4위를 기록한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29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신년 다짐 목표인 ‘다이어트’ 관련 제품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관련 건강

기능식품과 운동용품(요가매트, 아령, 짐볼)의 매출액은 지난달보다 약 30%, 20% 각각 증가했다.

올리브영은 가장 인기 있는 슬리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를 언급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주원료이며, 식사 전에 섭취함으로써 손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운동용품으로는 보디라인 운동, 상복부 강화 운동 등 다이어트를 위한 ‘보디쇼’ 운동용품을 제안한다. 품질, 요가매트, 아령, 체중계 등 퍼스널 트레ining 소도구들이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새해 다짐을 준비하는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하는 기간임에 따라 유통업체별로 이 기간에 새해 다짐 관련 다양한 판촉 행사를 펼치고 있다.

AK플라자가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 AK몰은 새해 다짐과 관련한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29일 까지 ‘헬로 2017’ 기획전을 통해 새해 다짐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2017년에는 할 수 있어요!’ 테마 코너를 통해 다이어트 용품인 소분 다이어트 한끼 혼밥 세트를 47% 할인 된 9900원에, 카스 디지털 체지방 체중계를 12% 할인 된 3만900원에 판매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디지털시대 손맛이 그립다… 직접 만든 ‘DIY 선물’

최근 한달 판매량 작년보다 5배 늘어
‘비트백 명화’ 밀그림으로 쉽게 완성
‘석고방향제’ 특별한 향 만들수 있어
포장지·데코레이션용품 매출도 급증



옥션에서 판매하는 ‘비트백 DIY 명화그리기’와 ‘DIY 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아래). 사진제공 옥션

연말연시를 앞두고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남다른 의미를 담은 이색 선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29일 오프마켓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26일~12월 25일) 동안 그림, 향초, 공예 등 직접 만들 수 있는 DIY(수제) 선물 품목은 전년 대비 품목별로 최대 5배 증가했다. 특히 홈 인테리어 열풍에 맞춰 집안을 꾸미기 위해 꾸밀 수 있는 아트 테라피 수제 선물이 인기를 끌며, 명화나 풍경 등의 도안을 참고해 그린 후 액자와 함께 선물할 수 있는 명화 DIY-드로잉은 492% 급증했다.

옥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백의 DIY 명화 그리기’(1만6800원)는 컬러 밀그림으로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며, 밀그림이 화판 즉면까지 대칭 연장돼 완성작의 측면과 정면이 혼연일체를 이룬다. 무지개풍선, 산토리니, 틀립 등 다양한 테마를 고를 수 있으며 측면까지 칠할 경우, 마스킹 테이프는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집실이나 거실에 장식할 수 있는 DIY 선물도 인기다. ‘DIY 미니어처 오르골(2만5000원)’은 동화 속 판타지를 자극하는 디자인과 아름다운 소리가 어우러진 DIY 오르골 제품이다. 함께 구성된 LED 등으로 밤에 잔잔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잠들기 전 명상 시에도 활용하기 좋다. 실내 작은 정원이라 불리며 힐링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테라리움도 눈에 띈다. ‘이끼 테라리움 DIY 키트’(2만7000원)는 유리용기 안에 다육식물, 마사, 자연이끼, 자연석 등 식물을 심어 키우는 실내 가드닝 제품이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인테리어로 실내장식 효과가 뛰어나고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 선물로 좋다.

최근 향초나 디퓨저 등이 각광 받는 추세임에 따라 향기 관련 수제 선물도 주목받고 있다. ‘DIY 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6900원)’는 가정에서 쉽게 석고 방향제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세트상품이다. 정식 드라이플라워가 포함돼 있으며 석고가루, 프로그レン스 오일, 올리브 리퀴드, 석고몰드 등으로 자신만의 향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제격이다.

단기간 배우면 집에서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공예선물도 인기를 끌며, 같은 기간 목공예와 가죽공예도 각각 387%, 185% 증가했다. 비즈 공예도 75% 판매가 늘었다. 공예는 선물 받는 사람의 이니셜도 넣을 수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수제선물이 주목받으며 선물 포장도 직접 하는 이들이 늘면서 포장지나 데코레이션 용품도 인기다. 기본적인 선물포장·쇼핑백은 4배(348%) 이상 급증했고, 선물포장·DIY소품(20%), 선물상자·리본·끈(17%)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옥션 리빙레저실 이진영 실장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지만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잇몸? 세균!

NEW

GUM GUM GUARD

잇몸 가그린
GUM GUM GUARD

99

잇 GUM=잇몸
가드 GUARD=지킨다

잇몸질환의 원인은 세균!
그래서, 잇몸을 위한 가그린이 나왔습니다

입 속에는 충치원인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잇몸질환원인균까지 구석구석 숨어있죠.
세균을 잡아야 잇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 6주간의 입상 시험 결과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확인

충치원인균은 물론
잇몸질환원인균까지 99.9% 살균
액상 타입으로 구석구석
숨은 구멍까지 완벽하게

충치원인균 무탄스균
잇몸질환원인균 진짜닐리스균
99.9% 살균효과

잇 몸 을 지 킨 다
잇몸 가그린®
검가드

고객문의 080-920-2002(수신자부담)

막혀도 막아도, 알아서 ‘교통정리’… What Is Next?

“다음 세대의 산업 먹거리 찾자”
미래기술 분야별 전문가 토론
콘퍼런스 첫 주제 ‘자율주행차’

완성차·보험·물류기업까지 참여
산업·인프라 구축 대응방안 모색
윤리 문제와 법적 과제 등 토론

빠르게 바뀌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기능하고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WIN(what is Next) 2016 콘퍼런스’가 29일 첫 번째 막을 올렸다. WIN 2016의 첫 번째 주제는 CTL(car to life), 즉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다.

이날 서울장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서울장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WIN 2016 콘퍼런스가 열렸다.

첫 번째 행사의 주제는 바로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 완성차 메이커의 관련 연구원과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 윤리와 법적 문제를 다룰 법률 전문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기관 전문가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의장을 이끌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과 기술동향 분석 = 이번 WIN 2016 콘퍼런스는 그동안 분과별로 진행됐던 논의들을 종합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공개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총 5가지 세션으로 나뉘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산업적 대응 방안과 도로와 도심 환경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주제 발표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두 번째 세션에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과 센

서의 기술적 동향을 알아보는 순서로 마련됐다. 이어 네 번째 세션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는 도로교통 체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뒤따랐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패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가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차 회사는 기본, 보험과 물류기업까 지 컨소시엄 구성 = 자율주행차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응용복합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연결성’이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기술적 측면을 벗어나 법과 윤리, 사회적 인프라 구성 등을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실용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제안으로 글로벌 27개사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컨소시엄이 내년 초 출범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면면

도 화려하다. 자동차업계는 물론 자율주

행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IT업

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업계 대표 기업

들이 종출동한다. 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를 비롯해 노요타와 닛산,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BMW, 볼보 등 12개사가 참가한다. 이밖에 보험과 IT 분야, 글로벌 물류 기업(UPS)도 합류했다. 싱가포르와 스웨덴 정부도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단순하게 자동

차 회사의 끓을 벗어나 사회 각 분야, 각

국 정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며 발

전하고 있다. 실증 실험을 통해 얻은 대

이터 공유는 물론 철도와 다른 운송수

단에 미치는 영향, 손해보험과 같은 사회

인프라 정비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다

각적 방면에서 논의도 지속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가장 적극적 =

빠르게 면모를 드러내는 자율주행차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연방정부가 지난 9월 자율주행차 안전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미시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

행차 실험과 개발 배치 판매 등 관련 분

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안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국토교통성이 자율

주행차 관련 규정 제정, 개발·보급 지원

을 위해 전략 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매년 새해 벽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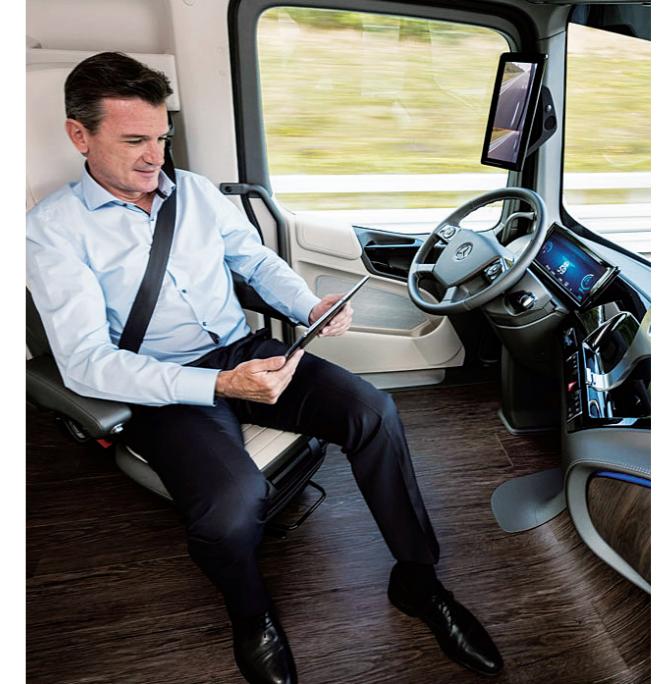
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도 더는 ‘가전’만의 축제가 아니다. 기전에서 ‘기술’로 무게중심의 죽이 옮겨졌다.

우리 정부도 내년에 자율주행차로 인해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담은 ‘자율주행차 정책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관한 분과별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율주행차 정책백서를 발간해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자율주행차로 인해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정책백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나 그 변화 양상과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며 “미래포럼의 활동이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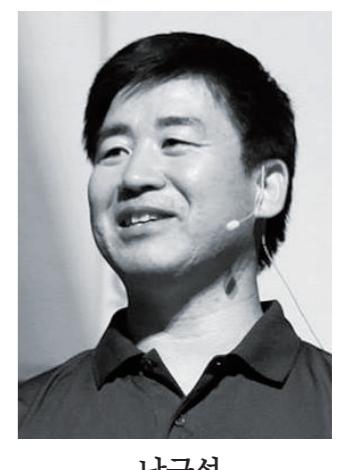


자율주행차는 전방 장애물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연산해 분석한다. 나아가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 도시공학과 사회 인프라, 윤리, 법적 현안의 융합적 해석도 필수로 여겨진다. 오른쪽 사진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제안한 ‘퓨처 트럭’ 콘셉트의 자율주행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다임러AG

자율주행 시대의 과제

“기존 도로는 안전주행 보장 안돼 신기술 융합한 인프라 확충 우선”

고속도로 중심 패러다임 변화
첨단센서·정보통신 융합으로
자율주행 정착·시장 선점해야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

복지교통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한 이동성을 제공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앞으로 자동차와 도로·ICT 등 인프라는 상호 연계 성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주행·회전·정지라는 조작을 지원할 사회적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공학과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기계와 교통 중심의 기술에서 첨단센서,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융합해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해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자율주행차는 교통체증의 해소, 교통사고의 절감, 산업용화의 촉진과 같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산·학·연이 힘을 모아서 자율주행차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장은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도로교통 체계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내 대동맥을 이어온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자동화되고 있는 도로교통 체계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 도로교통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톨링을 거쳐 자율주행 시대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와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곧이어 닥칠 이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비에 공감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주 정상라이다 CTO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센서의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다센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변 인식과 맵핑을 위한 핵심 센서다. 그는 “현재 구글 등 자율주행기술개발 선도그룹에 의해 사용되는 상용 라이다 제품들



현대차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콘셉트. 사진제공 미디어현대

자율주행 시대의 법과 윤리는

착한 AI… 똑똑한 法… 사고대응 메뉴얼 등 전문가 머리 맞대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권영실
변호사

박기혁
BP기술거래 대표

최영석
법안전용화연구소 위원

2018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속 100km로 거리를 질주하다가 교통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복잡한 도로에서 인공지능 자동차는 기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부상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 네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날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학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중요성과 시대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AI로 차를 운전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의 윤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 의견을 공유했다.

권영실 변호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 문제와 준비’란 주제의 강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어떤 법적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짚어봤다. 그는 “기술 부문에서는 수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

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딥러닝 기술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장의 모습과 상용화된 모습을 전망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구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최영석 법안전용화연구소 전문위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고’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어떻게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하다”면서도 “그 뜻지않게 실제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처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문위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사고 분석 케이스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진행 사항을 짚어줬다. 그는 또 현재 차량 사고를 분석하는 EDR 시스템의 특성과 이를 자율주행에 대응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소개했다.

전효정 기자 gradually@

미지막으로 이후한 쌍용자동차 전장개발시험팀 수석연구원은 스마트 카의 전개와 안전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디바이스화하려는 산업 내 새로운 IT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초연결성의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기반으로 미래의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모든 제작사들의 도전 과제 중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란 것이 최대의 고민이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성공화하려는 제품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터페이스상의 복잡성이 따른 다양한 안전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주택시장 호황 여파 올핸 매물 가뭄 시달렸는데…

내년 부동산 침체에 경매시장 살아날까

미국發 금리인상으로 연체율 크게 올라
유예됐던 물건 대량 발생할 가능성 커져
“매물까지 시간 걸려 부족 지속” 전망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에 접어들면서 저금리로 유예됐던 경매물건이 대
규모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
만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여전히 경매 매물 부족 현
상에 시달릴 것이라 주장도 있따른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경매 진행은 12만 6000여 건으로 역대 처음으로 13만 건 미만을 기록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20만 건 이하인 15만2506
건을 기록한 것에 이은 또 한 번의 최저치를 경신
한 것이다. 2005년(42만883건) 대비 30% 수준이며,
2010년 이후 평균인 21만2362건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올 한 해 경매물건 가뭄 현상에 시달린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짚는다. 즉 저금리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금
감,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연체율이 상승해 경매 물건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
는 예측이다.

광명시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2억 ~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리
가 2%대이면 소득이 감소해도 베틀 여력이 충분하
지만, 금리가 증가하면 소득 감소로 인해 집주인이
버티기 상당히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매도도 가능해 매
물이 상당히 많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한 수
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저금리로
인해 주택 연체율이 증가, 경매 물건이 시장에 대거
풀리기는 다소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부터 첫
경매일 사이에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
고 등의 맥락 준비가 이뤄진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2005년부터 10년간 법원경매 종결자료
116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
일이 접할 때까지 228일, 즉 7개월에서 8개월이 걸
린다. 첫 경매일이 접한 이후 낙찰까지 100여 일
이 걸리며, 평균 유찰 횟수는 2.28회 정도다.

다시 말해 금리인상과 시장침체의 영향으로 당
장 내년에 주택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도 경매시
장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8개월 이후라는
셈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가계대출 연체
율 역시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과 시장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급격히 높
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안갯속

서강대 2캠퍼스 건립계획 사실상 백지화로 도시계획 차질 불가피

재정 이유 중단…신임 총장도 부정적 입장
남양주시 “사업 원점…법적 책임 물을 것”

경기도 남양주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서강대
제2캠퍼스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시개발 계획 역시 틀어질 가능성이 점
쳐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
획위원회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을 위해 만들려던 공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보류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 SPC를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
지만,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건립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보상작업 등 전체 개발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
연되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2010년 2월 서강대와 양정역
세권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2013년 법적효력을 갖는 기본
협약을 맺었다. 서강대는 서울캠퍼스보다 2배
큰 새 캠퍼스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서강대 이사회가 재정 상황을 문제로 마
무리 단계까지 왔던 제2캠퍼스 건립사업 중단을 결
정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히 내년 2월 1일 신임총
장으로 취임 예정인 박종구 교수(종교학과)는 중도
퇴임한 유기룡 전 총장과 달리 남양주 캠퍼스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관계자는 “박 신임총장이 지난달 8일 가
진 소견발표회에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며 “특히 남양
주캠퍼스를 두고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는 입장을 보였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2캠퍼
스 건립 계획의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
위기라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쾌속’ 광명뉴타운, 12R구역 진통 왜?

경기 대표 재개발지역 관심 뜨겁지만
2번 연속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
건설사 “들려리 설 필요 있나” 불참
내달 초 3번째 시공사 선정 재공고
“사업성 괜찮아 선정 어려움 없을 것”

경기도 광명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지인 12R
구역이 시공사 찾기에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번
연속 입찰이 유찰되며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12R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22일 시공사 입
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하
면서 유호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포스
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 10대 대
형건설사를 비롯해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실제 입
찰에서는 관심이 이어지지 않았다.

12R구역의 유찰은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0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
산업개발 등 3곳이 참여했고, 당시에도 GS건설
이 단독응찰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광명
뉴타운 개발사업은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건

설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며 속도를 내 온 곳

인 데다 두 번째 현장설명회는 첫 번째보다 4개
업체가 더 눈독을 들인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예상을 깨는 결
과가 나온 셈이다.

업계는 이 구역의 연이은 유찰이 들려리 업
체가 되지 않겠다는 각 건설사들의 속내 때문
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해당 구
역에서 워낙 오래 물밀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

고 있다”며 “요즘 같은 도시경비 수주 열기에
도 건설사들 사이에서 굳이 우리가 들려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초 재공고를 내고 3번째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2월께 시공사 입
찰을 진행하고 한 달 후 총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 지역 대표적 재개발 사업지인 광명뉴타
운 개발은 1R구역의 GS건설·한화건설·포스코
건설을 비롯해 △2R구역 대우건설·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4R구역 현대산업개발 △5R
구역 GS건설·SK건설·현대건설 △9R구역 롯데
건설 △10R구역 호반건설 △11R구역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14R구역 대우건설·한화건설
△15R구역 대우건설 △16R구역 GS건설·두산
건설 등이 사업을 진행한다. 아직 시공사를 선
정하지 않은 곳은 12R구역 한 곳뿐이다.

광명시 철산동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부
동산 시장이 호황인 데다 최근 광명시 집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든 것 같다”며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닌 만큼 12R구역도 시공
사 선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R구역 재개발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72-267번지 일대에 아파트 2102가구를 신축하
는 사업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KIBO 기술보증기금

금융개혁
정책기금
운용본부
국민금융자본금

정부 3.0 과 함께하면,

“내일은 맑음”

기술보증기금은 정부3.0 협업으로
기술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지원

현지 인큐베이팅

- 북미(실리콘밸리)
- 유럽(브뤼셀)

해외투자유치

현지 엑셀러레이팅

- 해외 투자 유치회

국제기술평가

영문 기술평가정보

기술이전중개

- 해외 기술수요 매칭
- 현지 기술전시회 추천

글로벌기술이전

기술이전중개

- 해외 기술수요 매칭
- 현지 기술전시회 추천

데모데이

글로벌 유망기업PoP업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참여

자금지원

- 해외시장개척자금
- 기술이전자금

고객센터 1544-1120 생각이 현실이 되는 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 日 산업계 새 화두

‘과로사 물의’ 텐쓰 CEO 사임
‘불법 임업’ 경영자 책임 부각
日정부, 장시간 노동 기업 단속
재택근무·탈시간급 등 논의

최근 신입 여직원이 과로사해 물의를 빚은 일본 최대 광고업체 텐쓰의 이시이 다다시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1월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현재 산업계 전제가 직면한 과제이다.

이시이 사장은 “당사 직원이 과로로 사망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지도를 받아 다양한 대책을 펼쳤지만 과로를 줄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한 것에 경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이 사장과 동석한 나카모토 쇼이치 텐쓰 부사장은 불법 임업의 원인에 대해 그는 “과도한 품질 저항과 현장주의, 너무 강한 상하 관계 등 고유한 기업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텐쓰와 이 회사 임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월 조사에 들어간 이후 1개월 반만에 불구속 입건이 결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임업과 관련해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과로사 파문을 일으킨 일본 광고업체 텐쓰의 이시이 다다시(가운데) CEO가 28일(현지시간) 도쿄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발표하면서 다른 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위안화 약세에… 중국 금융시스템 경고등 켜졌다

‘환율방어’ 적극 개입하면서
외환보유고 3000억달러 증발
자본유출 경제 전반에 압박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7% 하락해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 위안화 가치 하락폭은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올해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아직 바닥을 짓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런 자본유출이 계속 경제 전반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국이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은행에 3분기까지 외환보유고는 3000억 달러(약 364조 원)가량 줄었다.

여전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를 약간 웃돌고 기업들도 꾸준히 외채를 상환하고 있어 외채 위기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와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광의통화(M2) 비율

은 지난해 말의 6.3%에서 현재 7.4%로 높아졌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역할을 하며 돈을 찍어내는 것을 지원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또 중국은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자본유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중국 은행시스템은 이런 자본 흐름이 역전되면서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예금 대신 은행간 시장에서의 단기 대출 의존도가 커진 것이 그 증거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미국·이스라엘, 유엔 결의안 놓고 갑론을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슬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집무실에서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을 반박하는 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캐리 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해 편향된 연설을 했다”고 비판했다. 캐리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연설하고 있다(왼쪽 사진). 캐리 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안 통과를 허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공존하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비판했다.

예루살렘 워싱턴/AP연합뉴스

美 연말 특수에 소매기업 콧노래

미국 소매기업들이 다소 부진했던 연말 쇼핑 시즌 출발을 딛고 막판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내년 경기 낙관론에 힘입어 지갑을 여는 미국

인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연말 쇼핑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소매기업 컨설팅업체 커스터마그로 스파트너스(CGP)는 올해 연말 소매기업 매출 증가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4.9%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6.1%를 기록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성장 폭이다. 신용카드업체 마스터카드 산하 스펜딩필

스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스펜딩필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동차와 석유 판매를 제외한 소매기업 총 매출이 4%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연말 가장 중요한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말 쇼핑 증가세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SJ는 평가했다. 연말 소매기업 매출 증가세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개선과 맞닿아있다. 전날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3.7로 집계돼 2001년 8월 이후 15

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보통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임금 상승과 주식시장 상승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감 소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11월 기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살인 에어백’ 다카타 미서 벌금 1조원 합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콜 사태를 부른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가 내년 초 미국 연방검찰과 형사 처벌 면위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백 살인’을 조راح한 다카타가 벌금을 최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낼 것으로 보인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 내에서 해결을 짓겠다는 의도다.

2014년 미국에서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결함 있는 에어백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84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다카타는 혼다를 포함한 자동차 업체에 거짓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카타는 혼다를 포함한 일본 업체는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에 에어백을 공급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1260만대, 전 세계적으로는 6000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19개 자동차업체가 4200만대의 차량을 리콜하는 과정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2900만대를 회수했고, 지난 2일까지 1250만대가 수리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여자친구의 생애 첫 유럽 여행기

여자친구가
사랑한 유럽
매주 토요일 sky Drama 오전 10시
sky Travel 밤 10시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믿음이 있어 든든한 금융

공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지는 공에

승리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동료의 믿음을 실는 것

오늘도 나는

믿음의 힘으로 공을 던진다



고객의 믿음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 금융의 힘이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선물 NH농협카드

금주의 키워드 골든타임



정승호

언론인·전 코스카
저널 논설주간

정유년(丁酉年)에는 없어져야 할 단어

책도 미친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사용한 건 그 얼마 전 방영돼 인기를 끈 TV드라마 ‘골든타임’ 때문일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인 외과 의사들은 ‘심장 마비,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이 일어난 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줄을 쓰는 순간 기자적 모진 충동이 튀어나옵니다. ‘혹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인사말을 첨삭하면서 이 단어를 밀어 넣었나?’라고 의심해 본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이 인사말 이후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들도 이 단어

을 허비한 것을 두고 “구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으로 절망을 담아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호가 바로 항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았다”며 희망에 찬, 미래지향적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면서 드러난 정치·경제·사회 구석구석을 모조리 썩게 만든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모든 비리를 없애며, 지역·혈연·학연으로 연결된 인적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가 국민도 같이 공감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멋진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각오로 정말 우리나라가 나아갔으면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깔끔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단어 사용의 새 흐름에 편승한 건 분명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담은 골든타임은 번번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우리 옆에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게 그 증거입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진정한 골든타임을 맞았다”라는 말과 글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하지만 이런 말, ‘대통령과 최순실 덕분에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로 설 기회가 왔다’는 말을 듣노라면 씁쓸하고 혀탈하기만 합니다. 그 많은 골든타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또 “골든타임이 왔다. 우리 모두 잘해 보자”는 말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년 새해에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없이, 그저 평안히, 평안히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 덧붙일 게 있네요. 영어 사용 국가에서는 ‘골든타임’을 고기의 좋은 때를 말할 때 쓰지. 우리처럼 미래에 대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뜻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부인 이엘라의 말이 좋은 예문이 되겠습니다. “The Marcos era was the golden time for the Philippines.” “우리 남편 그 시절, 그때가 내 골든타임이었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미래의 귀중한 시간은 ‘골든아워’라고 표현합니다. 어긋난 용어 사용도 우리의 골든아워를 망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지난 친 것이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로 설 기회가 왔다”는 말을 듣노라면 씁쓸하고 혀탈하기만 합니다. 그 많은 골든타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정유년 새해에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없이, 그저 평안히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기사와 칼럼에도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처음 이 말을 한 날부터 1년에서 꼭 하루가 모자라는 이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골든타임’이 봇물 터진 듯 사용됩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

이니 이게 어찌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는 것 이었지요.

대통령도 약 4개월 뒤 무슨 회의에서 “규제를 협회하지 못하면 10년, 20년 후엔 우리 대한민국은 살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모

여. 세월호 진상 규명을 원한다.”(트위터 @is_something_)

“저는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하는 논거를 반박했지만, 오랜 시간 노력해 만든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입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추론하는 게 혀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허위는 진실을 덮었던 자들 뜻입니다.”(트위터 @Planemo_X)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나마 아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찾는 영웅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트위터 @shrekT)

이재영 기자 lju0403@

SNS 속 세상읽기 8시간 49분… 그날의 진실에 대한, 그의 우리의 물음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탑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을 지나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전복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인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됐습니다. 심지어 이 중 9명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참사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는 아직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8시간 49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

X’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네이션 수사대 자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세월X’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호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편견 속에 잠겨 있습니다”라며 ‘세월X’를 통해 세월호와 잠수함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밝힌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 빠르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월호 참사 원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로 역시 “세월X”를 통해 나는 정말이지 진실을 찾고 싶었고, 내가 본 그대로를 말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각종 의혹에 책임 회피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뿐이죠. “세월X” 영상을 보는데 정말 대단. 집념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영상을 두 시간 봤는데도 노력의 흔적들이… 8시간 49분의 영상 꼭 보세

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원한다.”(트위터 @is_something_)

“저는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하는 논거를 반박했지만, 오랜 시간 노력해 만든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입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추론하는 게 혀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허위는 진실을 덮었던 자들 뜻입니다.”(트위터 @Planemo_X)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나마 아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찾는 영웅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트위터 @shrekT)

이재영 기자 lju0403@



연해주서 한인 사회주의 운동

조국 자유·독립 위해 반제반전



1885년 2월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탄케비치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났다. 1869년 함경북도 경흥(경원)의 대홍수를 피해 부친 김두서가 노령(露領)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1895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친구인 스탄케비치에게 맡겨졌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여학교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며 불임성 있고 꽤 활한 여성으로 잘 자랐다. 16세에 스탄케비치의 아들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여 결국 이혼했다.

재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나, 1914년 가족을 떠나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우랄 지방 별목장의 통역관이 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암장섰다. 1917년 2월 혁명 때 차르 정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송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뤼쓰거우(나자구·羅子満) 무관학교 생도 출신인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과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뒤 7월 당 사업을 위해 극동 지방으로 파견되어 선전, 선동 사업을 전개하면서 활동하였다.

1917년 10월 ‘자랑스러운 조선 인민의 딸’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지방대표자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18년 1월 하바롭스크 시당서기로 되었다. 4월에는 이동휘와 함께 ‘반일반제(反日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채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 조직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을 모집, ‘한인사회당 적위군’을 조직하여 일본군 및 백위군과 전투를 하게 하는 한편, 일본군이 연해주에 출병했을 때 반제반전(反帝反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군 병사들에게 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6월 말에 100명으로 조직된 조선인 적위대에 참가하여 투쟁을 계속하다, 1918년 9월 하바롭스크가 일본군과 백위군에 함락되었을 때 백군에 체포되었다.

34세에 ‘조선 인민이 러시아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의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온 세상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죽어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9월 16일 새벽 4시 총살당했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신영숙 여성독립운동가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이투데이 역사·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무엇으로 살까?

- PART1. 별거 부부 vs 별난 부부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
- PART2. 시니어타운 부부 “커뮤니티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 PART3. 탐나는 인생 무대 위 부러움은 칠나. 나만의 행복은 오래오래
- PART4. 결혼 2막 “내에는 제 인생의 큰 선물”
- PART5. 백년해로 부부 “아직 끌어안고 자요”

창간 2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

문화관 담사기 황순원 문학관

소년, 소녀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어린 시절, 소설을 읽다 사랑에 빠져버린 첫 작품이 바로 <소나기>다. 부르른 무 ngàn에 실개천 돌다리길,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소나기처럼 온몸에 녹아들었다. 애잔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소설 <소나기>,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따뜻함을 간직한 그곳에 찾아갔다.



ACTIVE SENIOR LIFESTYLE SURVEY



‘칠자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체적 범언과 민족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이 풍진세상 희망가를 부르는
소리꾼 장사의
인생, 행세대안 처도
성공하는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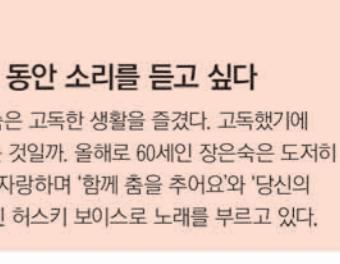
파독광부
민석기씨
수천ή 맘 밑에서
내가 피난 것은 자궁심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식사가 아닌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빈더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70대가 되어도 최강 동안 소리를 듣고 싶다
김신영·백외섭·박종섭·정원일·박혜경 동년기자
우리 세대 이야기
성경애·김종혁·이경숙·신용재·조왕래 동년기자



박원식이 만난 귀촌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사골에 사는 전용숙씨 부부
가급적 소박하게, 가급적 고요하게

기고

노재천 강동아트센터 관장(전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문화융성’, 허탈을 희망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첫 구절이다. 이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4대 비전으로 담아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국민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하며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 등이 취임사의 주요 내용이다.

얼마 있으면 대통령 취임 4년이 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옛 날이나 지금이나 온 백성이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사회 각 방면의 여러 계층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취임사에 녹여진 뜻을 개인의 셈법으로 미라를 그릴 것이다.

특히 이번 취임사에 문화예술 관계자에게는 경천동지할 내용이 발표되었다. ‘문화 융성’이 4대 국정기조에 포함된 물론 ‘문화’라는 멋진 단어가 늘 비중 있게 다뤄진 ‘경제’와 함께 나란히 19번이나 언급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었다.

거기에 문화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려 정부 예산 규모의 2%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끝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을 것이다.

다. 선진국과 달리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정치, 경제, 복지 분야에 비해 항상 부자적으로 여겨졌던 터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나. 요즈음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들썩이고 시끄럽다. 수사당국이나 언론은 연일 양파 속을 들여다보며 한 걸씩 벗겨 나가고 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떻게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자행될 수 있는가. 국가 위상이 말이 아니었다.

‘냉수 마시다 체하면 약도 없다’ 하여 우물가 여인이 급하게 물을 찾는 사람에게 바가지에 벌들잎



한 잎을 뜯워 주었다는 설화가 있다. 여인의 지혜로움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벌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일상사 급하게 행동하여 낭패를 보게 되니 절차를 중시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모든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결과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유능한 일선의 공직자들을 무시하여 국가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문화 융성’으로 열겠다던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엄원을 저버렸다. ‘문화 융성’으로 국민 행복을 실현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비리, 문화 청조용합밸트 구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개입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엘리트 부처라는 자긍심에 흡집이 나며 위상이 훈들리고 성실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한 공직자는 할 말을 잊고 있다. 전국 문화예술 관계자들도 똑같은 심경이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역량과 창의적인 국민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문제부는 이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기소침하지 말고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 경제·국민 행복을 실현할 책무가 있다. 차세대를 위한 문화창조 융합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관련 법을 확대해 원로예술인, 청소년 예술지망생, 시민예술가, 장르별 예술인,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우는 예술 행정, 예술을 좋아하는 기획사 대표, 예술계에 몸담은 배고픈 자유 직업인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고된 현실이 두 어깨를 짓눌렀어도 내일의 밝은 해를 생각하며 힘든 길을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좌절했다. 아니 절망을 강요당했다. 어려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다시 힘을 내겠다고 했다. 2016년 별난년이 저무는 12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12월 3일, 170만 명이 모인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장의 김홍기 씨(51·직장인) = “대학 때 민주화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가두투쟁(街頭鬪爭)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이 좋은 국가를 만드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대학생 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존립 이유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을 사유화해 수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다시 뽑지 않기 위해 두 눈 부릅뜨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12월 29일
김영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프랑스 전투와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전설적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1919. 1. 29~2005. 12. 29)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1886~1941)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영옥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3개국(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올해 광복절 71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프랑스의 두 마을 브뤼에르와 비퐁텐에 방에 앞장섰던 김영옥을 비퐁텐의 노

2016년 12월, 길에서 만난 사람들

#12월 14일, 아린이집 아이 때문에 퇴근길 서두르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박정숙 씨(32·직장인) = “육아휴직을 마치고 올해 초 복직할 때만 해도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주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야 했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선 집과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돼 쉽게 용화할 수가 없게 됐고. 아린이집에는 아이를 제일 먼저 등원시키고 제일 늦게 하원시키는 그런 엄마로 인식됐고, 독립했음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식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더는 아이를 꿈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고 아이에게 미안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아이와 주변에 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12월 19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승현 씨(34·자영업) = “지난 5월 개업한 이후 8월 15일 단 하루 쉬었습니다. 재료비,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온종일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적자를 면하기 힘듭니다. 정유라, 최순실 씨를 보면서 박탈감을 넘어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헛된 바람이라

는 것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사가 잘돼 일주일에 한번 쉬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많이 갖고 싶습니다.”

#12월 23일,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일거리 찾는 정모 씨(57·일용근로자) = “다른 것 없어요. 오늘은 일을 구했으면 합니다. 매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집에 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은 줄었는데 중국교포 등 인력시장을 찾는 사람은 늘어나 공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막막합니다. 시국에 신경 쓸 힘도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제발 2017년에는 경기가 풀려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합니다.”

2016년이 저무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이 올해는 어렵게 생활했지만, 2017년 정유년에는 조금은 나아졌으면 한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 만 강물이 회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의 ‘군주 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과 비신 실세 최순실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로 보는 세상

이투데이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면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월X’를 유튜브에 올리며 파문을 일으켰죠. 네티즌 수사대는 경찰을 능가하는 수사력으로 요즘은 ‘검티즌(검사+네티즌)’, ‘누과수(누리꾼 과학수사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집요함과 논리적인 분석으로 활약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네티즌 수사대, 어쩌면 이들의 다른 이름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일지도 모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fte5ob>

온라인
토닥토닥

사망 후 알려진 조지 마이클의 선행 “이젠 진짜 천사가 됐겠네요”

인들은 ‘끼피텐(김집 대위)’으로 기억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사업가로 변신했던 그는 6·25전쟁이 터지자 조국을 위해 재입대해 중공군을 상대로 ‘유럽 불파신화’를 재현하며 중부전선 북상의 주역이 됐다. 주한미군 군사고문으로 대공 미사일부대 창설을 건의하는 등 호크 미사일부대 창설의 산파 역할도 했다.

31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은 김영옥은 부상 후유증으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평생을 내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바치겠다’는 몽테 카시노 전투(1944년) 때의 다짐을 이행하다가 생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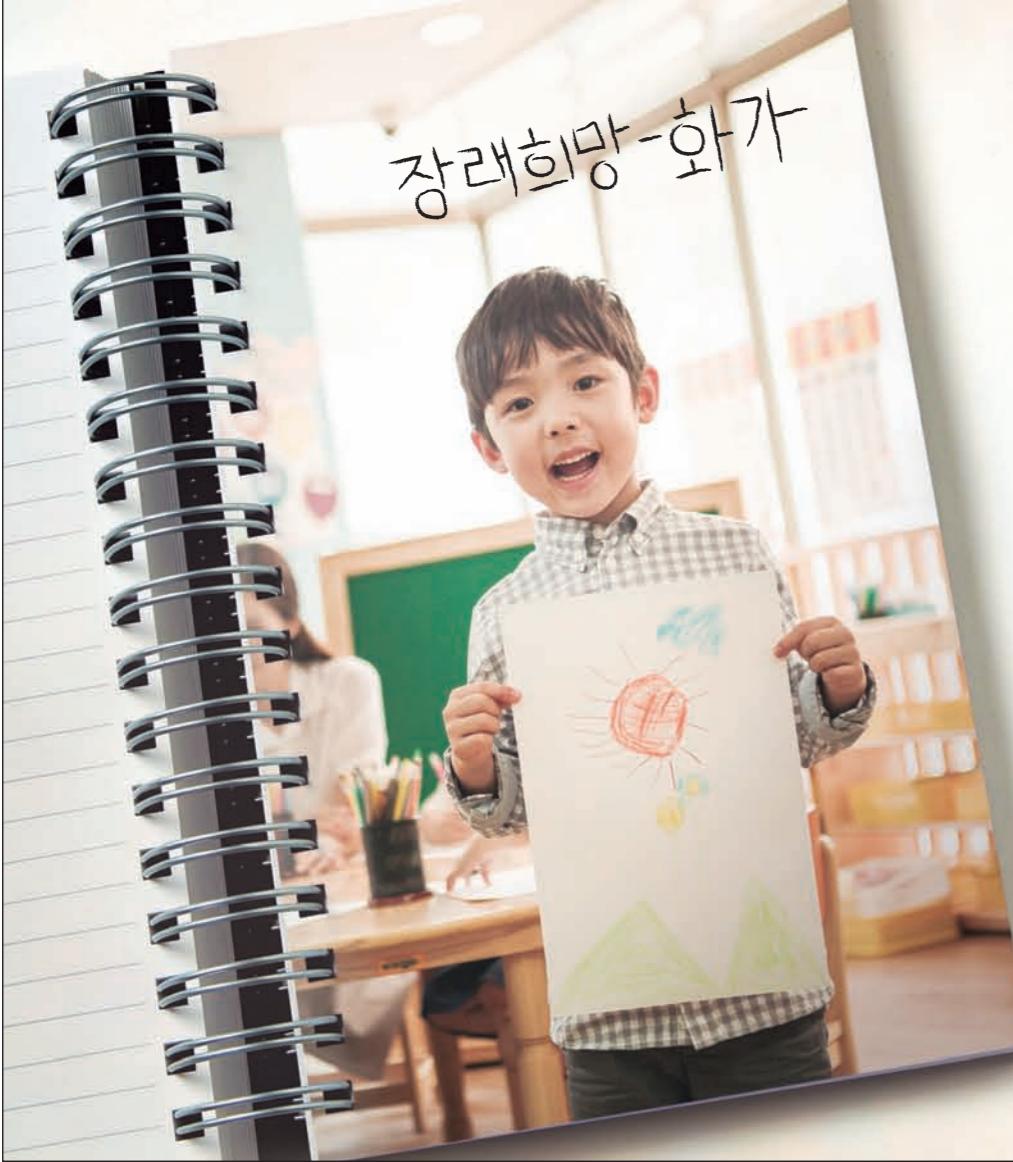
그는 한국전쟁 당시 고아 500명을 돌봤으며, 전역한 뒤에도 미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고아 입양아,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여성을 바쳤다. 또한 노근리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하면,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됐던 442연대를 기념하기 위한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 재단’을 설립,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활동했다. 미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김영옥중학교와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UC 리버사이드) 부설 김영옥재 미동포연구소가 있다. 미국 최고 전쟁영웅 16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제를 후원했다. 그는 종종 한 노숙자 쉼터에서 변장한 채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으며, 불임 치료 여성을 위해 많은 기부금도 냈다. 네티즌들은 “노래도 아름답지만 세상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아름답네요.”, “이젠 진짜 천사가 됐겠네요.”, “끝까지 팬들에게 감동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y0403@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우리 아이의 꿈노트, 직접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현대오피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입니다

(주)현대오피스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오피스의 코팅기로 내 아이의 똑소리나는 교육을 시작해보세요!

전제품 안전인증획득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 스마트한 탁상용 문서세단기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그만!
고지서 · 영수증을 깔끔하게 세단!



엄마표 교구제작의 필수품! 코팅기
빛에 바래거나 물에 젖을 일 없게!
중요문서 · 아이들 교구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로 학습효과 UP! 제본기
제안서 · 연습장 · 교재제작 등
필요한 내용만 썩식!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현대오피스 쇼핑몰 www.hd2.co.kr |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용제휴소평몰, 씨제이몰, 신세계몰, 1300k, NH마켓, nsquare, d&shop,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쇼N, B2B ZONE, 에누리닷컴, 어바웃, 다나와

국가통합인증
K-CODE 획득
JAS-ANZ
G
품질경영인증
ISO 9001 인증획득

참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개명(改名)의 숨은 뜻?

실망한 외할머니께서 “그럼 인사동에서 태어난 계집 아니니 인희(仁姪)로 하자”고 하셔서 만들어진 이름이라 한다.

2년 후 셋째도 딸이 태어나자 엄마는 당시 꽤 이름 난 작명소를 찾아가셨다 한다. 간 길에 둘째 딸 이름이 어떤지 물었더니 작명가 할 인희는 조실부모할 이름이니 은혜(惠), 보배(珍), 혜진으로 바꿔 주라고 했단다. 그 길로 내 이름은 인희 대신 혜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까지 혜진이란 이름을 쓰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호적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름을 바꾸려면 당시엔 재판을 받아야 했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부모님께선 “동안 새 이름을 만면 이상 불렀을 테니 액땜이 되었을 게야”라고 합리화 (?)하시곤 호적 이름인 인희를 다시 쓰자고 하셨다.

한데 이름이 바뀐 사건은 내게 예상외로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사귀었던 친구 대부분을 잊었고, 고등학교 때 새로운 이름에 적응하면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지독한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다.

물론 최근엔 개명 작업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져 놀림감이 되었던 이름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름을 자유롭게 바꾸고 있는 듯하다. ‘펠레’라는 이름이 삶에 ‘우주로 바꾼 제자’, ‘전’ 이런 외자 이름을 ‘유전’으로 바꾼 제자, ‘수자’란 이름 대신 ‘수안’으로 불러 달라는 선배 등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개명하는 경우

를 만나고 있다.

와중에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의 개명 소식을 접하자니, 흑여 숨겨진 의도는 없었을까 의구심이 밀려온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최도원(崔道源), 최상훈(崔尙勳), 최퇴운(崔退雲), 공해남(孔亥南) 등의 이름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최순실 역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실상 자신은 최서원인데,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것에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를 일이다)이다. 딸 정유라의 예전 이름은 정유연이었다 하고, 조카 당시 호의 원래 이름은 장유진이었다 한다.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읽어 내려면 사주·관상·전생을 골고루 보아야 하는데, 그중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도 4~5%는 되니 무시해선 안 된다는 통설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마음 한구석엔 개명 이전의 삶에서 심기일전하여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다. 또 이름을 바꾸면 웬지 운명 또한 멋지게 바뀔 것이란 꿈을 꾸기도 할 것이다.

최씨 일가의 개명도 이런 소박함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후안무치(厚顏無恥)한 행적을 미루어 짐작컨대 개명을 통해 무언가 부정한 것을 숨기고, 진정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극심하게 부패한 것을 덮기 위한 저의가 있었으리란 심증이 고개를 든다. 이들이 개명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를 주변에 과연 어떤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었는지 세밀히 추적함으로써 물증을 확보하는 작업, 해볼 만하지 않을까?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망년지교를 꿈꾸는 송년회



2016년이 달랑 이를 남았다. 돌이켜 보니 한 해 동안 귀한 인연을 여럿 만났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통하여 자신을 알아주는 벗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인 ‘지린지교(芝蘭之交)’, 맑은 물처럼 담백한 친구인 담수지교(淡水之交), 목숨을 나눌 만큼의 사이인 ‘문경지교(刎頸之交)’, 나아와 무관한 벗인 ‘망년지교(忘年之交)’ 등 참된 우정을 뜻하는 말들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특히 망년지교, 망년지우(忘年之友)는 너무나도 고상한 우정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이를 떠나 허물없이 사귄다니 얼마나 아름답고 상서로운 만남인가. 보통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제안해 관계가 이뤄진다는데,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이들과 나이를 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망년이 일본과 연결되면서 의미가 심하게 오염됐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설날그믐에 친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청대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이를 ‘망년(忘年)’ ‘연명(年忘)’이라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미치 우리 풍속인 듯 뿐리를 내렸다. 일본말 ‘보우넨카이(ぼうねんかい·忘年會)’의 한자를 그대로 읽은 망년회는 ‘한 해를 잊는 모임’이다.

국어사전에도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그해의 온갖 곤욕을 잊자는 뜻으로 배우는 모임’으로 옮겨 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송년모임’, ‘송년회’라는 순어를 제시했다. 그저 먹고 마시며 한 해를 잊어버린다는 게 오히려 정서와 맞지 않아서다.

송년회(送年會)는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신년(送舊迎新)에서 따온 말이다. 요즘엔 순우리말인 ‘설아래’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성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기업금융부 (02)799-2648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정책사회부 (02)799-2663 사업부 (02)799-2664	기획취재팀 (02)799-2651 본사장부 (02)799-2658	
www.ettoday.co.kr	광고부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사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객석

한나영 다산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30대, 이립(而立)과 똥값 사이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망년회 자리에서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있다. “여자 나 이 30대면 똥값이지. 특히 결혼 못한 30대 여자는 또옹값” 헐..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며 충격적인 말들이 아직도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오고 가나… 한 해 잘 마무리했다고 모인 ‘망년회 자리’에서 ‘망’할 충격만 가득 안고 돌아왔더랬다.

결혼 못한 30대 여자는 ‘노처녀’ ‘똥값’이라는 대명사가 여전히 꼬리표처럼 달리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봤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사회 속 내 나잇값은 고작 노처녀 취급받는 똥값이었던가… 시급찮은 똥값 취급이 내 나잇값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30대의 나를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나잇값은 과연 무엇일까?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사회적 명망도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자를 빙을 동

동 구르며 찾아 후다닥 결혼하는 것이 30대 여자의 의미 있는 나잇값일까?

결혼이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나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과연 30대 여성의 나잇값일까? 그래서 결혼 못한 30대 여자를 똥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여자 나이 서른에 좋은 남자를 만나기란 길을 걷다 월자폭탄을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독일 영화 ‘파니 핑크’의 여주인공이 말했다. 월자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 평생의 숙제도 아니고, 30대 여자의 나잇값이 되기엔 가혹하지 않을까?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 서른을 이립(而立) 즉, ‘학문의 기초를 닦고 스스로 자립하는 나이’라 했다. 최소한 공자의 뜻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우고 부딪치며 스스로 자립하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30대의 나잇값이 아닐까?

기자수첩

김나은 국제부/better68@



아베 총리의 사과 없는 외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행보였다.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진주만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야기다. 아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식 회생자 기념관을 찾아 현화하고 묵음을 했다. 하지만 딱 기기지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2차대전 발발에 대한 그 어떤 사죄나 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이 공식화될 때부터 한국은 물론 주요 외신도 그가 사과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협상 타결 당시에도 사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기사다 후미오 외무상은 “10억 엔 기부를 통해 일본은 모든 책임을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10월에

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언급 가능성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 차례로 공분을 샀다.

일본은 전후 70여 년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를 꺼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진주만 방문에서도 사죄나 반성이 아닌 ‘화해’에 방점을 찍었다. 아베 총리는 “전쟁에서 싸우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희망의 동맹’이 됐다”면서 “세계인에게 진주만이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 없이 계산기만 두드린 정치적 행보는 오히려 공분만 살 뿐이다.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집

맛깔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오고 눈들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렵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 아온 교포 생활을 ‘맛깔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 나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규 (문화평론가, 단국대 교수)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점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겉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 김동혁 (문화평론가)

잔디로

100% 방수, 보온,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

내 발이 편안합니다!

잔디로 천연가죽 양털 레저화, 워킹 컴포트화!

잔디로 신발은 각 분야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 수작업(Hand-made)으로 만들어지며,
컴포트화 파파슈는 신발창에서 갑피를 대고 맞꿔매는 웰트제법으로 생산합니다.



잔디로 천연양털 레저화

부츠 스타일과 단화 스타일 2종으로 100% 천연양털 사용
천연가죽 갑피와 항균 라텍스 인솔, 멀티 스파이크 아웃솔 사용
색상: 블랙, 브라운 / 가격: ₩168,000원 ~ ₩180,000원



2017 잔디로 워킹 컴포트화 / LU 2607-07

천연 누벅가죽, 천연가죽 항균 라텍스 인솔, 멀티 스파이크 경량 아웃솔
색상: 카키, 브라운, 네이비, 보라, 레드 / 가격: ₩198,000원



잔디로 컴포트화 파파슈 / CM 0513

천연가죽 갑피, 천연가죽 항균 라텍스 인솔, 논슬립 아웃솔 사용
색상: 블랙, 브라운 / 가격: ₩120,000원

기업 글로벌 전략 속사정까지 파악…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70~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시대 견인
상역국 시절부터 경제부처 핵심 역할

기업 애로 해결·신규 유망품목 발굴부터
수출 전시회 주관·무역 인력 양성까지
3관 12과 체계… FTA 국내 대책 가능도

수출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시대를 이끌어 온 상공부원부 시절부터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과거 상공부 시절 상역국(현 무역투자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3공화국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로 한창 성장 전략을 펼칠 때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한데 모아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아전 사령탑 역할을 맡았다.

당시 상공부 상역국은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 재무부의 이재국과 함께 경제부처 안에서 핵심 중의 핵심 부서로 꼽혔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상공부 정관을 지낸 사람 치고 상역국장을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 윤성장 전 장관도 수출 과장을 역임했고, 정만기 1차관은 무역진흥과장과 무역정책관을, 우태희 2차관은 수출관리과 사무관을 거쳤다. 밤낮없이 애쓰는 업무로 수출량은 많지만, 수습 사무관들로부터 한변쯤 경험해보고 싶은 부서라는 이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1월 9일 서울 한국무역보증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美) 대선 이후 유관기관 수출 청취회의'에서 트럼프 당선 후 한미 통상 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기가 나왔다.

1964년 11월 30일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입국의 길로 들어선 분수령이다. 수출 1억 달러를 넘어 서게 되자 상공부는 온통 진itch 분위기였다.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들과 수출 상품을 만드는 근로자 모두 수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상역국은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가 무역자유화로 흐름이 잡혀가면서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됐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도 불씨가 끼여 갔다. 지난해 저성장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저유가로 4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시기에서 정관으로 취임한 주형환 장관의 취임 일정은 '수출이었다'. 주 장관 머릿속에 온통 수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수출을 쟁겼다. 첫 공식 업무로 수출 기업을 찾은 주 장관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매달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팔았는지, 우리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전 직원이 수출 총력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수출 실적이 좋으면 한국 경제의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산업부 수출 조직은 수출 업계의 애로를 분석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기업이 수출에 참여하게 해 수출이 실제 늘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전문가를 모아 그들의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생생한 견의와 제안을 수렴한다. 기업의 속사정과 수출

산업부 수출관련 라인 조직변동 내역

2009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3관 10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통상협력정책관: 통상협력정책과, 구미협력과, 아주협력과, 중리협력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3관 10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중국협력기획과:
통상협력정책관: 통상협력정책과, 구미협력과, 아주협력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기존 통상협력정책국을 확대·개편해 산업부 협력실 신설**

2011년 5월 30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2관 6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3관 10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통상국내대책관: 총괄기획과, 홍보협력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201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3관 11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무역안보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통상국내대책관: 총괄기획과, 홍보협력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

2016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3관 12과)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무역협력과, 수출입과, 무역안보과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
통상국내대책관: 총괄기획과, 홍보협력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

활동을 대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투자실은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등 3관으로 이뤄져 있고 산하에 12과가 있다.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자유

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왔다.

현재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정책관에는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무역협력과, 수출입과, 무역안보과 등 5개가 있다.

기업 현장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출 리인이다. 수출입과에서는 품목별로 기업 수출 현장의 실제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출 전시회와 상담회를 주관하는 무역진흥과는 수출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별 기업들과 일선에서 접촉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도 돋고 있다.

무역협력과는 주 장관이 취임한 이후 새로 신설한 부서다. 신규 유망 품목을 발굴하며, 특히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재 융합 협약을 담당한다.

무역정책과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무역의 날을 개최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도 추진한다. 무역 인력 양성도 무역정책과의 업무다.

수출입과는 장단기 수출입 전망과 동향 분석,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무역안보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리, 대이란 제재 및 교역투자 관리를 맡고 있다.

수출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가장 마음 고생을 하는 것은 무역국 직원들이지만, 공업국으로 불리는 각 업종 과들로 수출 촉진 요청들이다. 산업부의 수출 대응체계를 들여다보면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가 있어 무역투자실장이나 무역국장 주재로 품목별 자동차과, 조선과, 석유산업과 등 담당과와 함께 모여 대책 회의를 한다. 무역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각 업종 과들의 업무도 함께 많아지는 셈이다. 통상 분야 역시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반도체·OLED 등 선전… 수출 전선 희망적"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던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유가 급락,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았다.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 다시 감소세

를 보였고, 11월에는 2.7% 늘어났다.

채희봉(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주체 △품목 △시장 △방

식 △지원체계의 혁신을 화두로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했다.

주체에 있어서는 대기업 위주에서 수출의 든판한 베�풀목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2013년 32.8%에서 올해 37.7%까지 올라갔다. 올해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 기업화하도록 힘쓴 덕분이다.

품목으로는 화장품, 패션,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수출이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급증하

고 있는 점도 세계 시장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지금까지 체결한 15개 자유무역 협정(FTA) 이행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수출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채실장은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 실장은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입, 특히 자본재 수입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입 중에서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 품목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 실장은 내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다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제성장을 비교하면 무역증가율이 낮았는데, 이는 과거 30년 동안의 트렌드와 다른 패턴"이라며 "내년도 교역 성장률은 3% 정도로 세계 경제 성장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 캠페인은 이투데이와 함께 합니다

굿네이버스는 방학 중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아동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급식지원 및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전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싫어요...

두 아이의 하루 용돈 3천원
9살 성준이 남매의 식사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뿐입니다

두 아이가 먹기에 부족한 식사
오빠 성준이는 이미 저도 동생에게 양보합니다

학교에서 배불리 먹었던 따뜻한 한끼가 간절해집니다

홀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 www.gni.kr

성준이 후원 ▾ 검색

굿네이버스

요트 체험·밤 낚시·은하수 관찰... '가고싶은 어촌' 만든다

어촌관광 활성화 팔걷은 해수부

정부는 어촌의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 생산, 가공, 유통, 관광·서비스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어촌 6차 산업화의 핵심은 어촌 관광 활성화이다. 어촌 관광 활성화의 목적은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국민 휴식, 체험공간 제공 △어촌과 도시민의 교류를 촉진해 상호 보완을 통한 발전 도모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어촌 육성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을 더 재미있고 아름답게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 기대효과

	2012년	2015년	2016년
방문객	-	837만명	900만명
체험객	75만명	100만명	105만명
체험소득	241억원	271억원	290억원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광고 이미지에는 한 여성이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다. 배경은 노란색이다. 제작자는 KB손해보험입니다.

제작자: KB손해보험

내용:

- 국민을 잘 아는 금융 솔루션과
- 보험 전문가의 노하우로
- 거정업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 저 김연아의 평생 희망파트너도
- KB손해보험입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KB 아이좋은자녀보험

순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6-3909호(2016.8.16)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콜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금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키워드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한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리나 관련 창업 귀어귀촌민 대상 요트면허 취득 지원·자금 저리 응자

유명 세프 활용 어촌 특화요리 개발 로컬푸드 레스토랑 건립 지원도

수수료 낮춰 민박 정보 등록 추진 체험마을·해수욕장 등 사이트 통합

어항에 관광·휴양·마리나·낚시기능을 추가해 부가가치제고 및 국민 휴식공간 제공, 낚시관광형 등포항·위도항을 착공한다. 복합형 5개, 낚시관광형 3개, 피서리나형 2개 항 등 총 10개 항이다.

어항의 자연경관과 어촌의 문화·예술을 융합한 어촌관광 특화어항도 개발한다. 수산한, 미조한 등 4개소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요트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어촌관광 소득창출 기반 및 레저선박 피항·휴식기능을 갖춘 어촌마리나역 16개 항을 개발한다. 올해 11월에 삼길포항, 매물도항을 착공했다.

어촌에서 먹고 자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선 유명 세프를 활용한 어촌특화요리 개발에 나선다. 2015년에는 애간장우럭찜, 시래기전복밥, 성게알리조또 등 메인 요리 3가지를 개발했고 수산물 요리 페스티벌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바다요리를 현지에서 맛볼 수 있게 로컬푸드 레스토랑 건립도 지원한다.

10월에는 고장 두어마을에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착공했고 태안 대야도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여수안포마을에는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당시 로컬푸드 레스토랑 3개소가 건립돼 있다.

어촌 숙박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Airbnb), 미국 캠핑장 예약사이트(KOA)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어촌민박 예약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 전국 연안 어촌민박 정보 등록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옥션, 소셜커머스 등에 비해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5%에서 3% 이내로 책정해 민박·펜션 등록을 유도하고 전국 단위 연안 숙박정보 게시로 국민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촌체험마을은 등급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올해 9월에 어촌체험마을 대상 음식·숙박 등 4개 분야에서 8개소에 대한 등급 부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도 7개소 1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바다여행 사이트 개편을 통해 젊은 층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바다여행 홈페이지, 체험마을 개별 홈페이지, 해수욕장, 해양관광 DB 등 분산 관리되던 사이트를 통합했다. 또 어촌 체험 프로그램 예약 결제시스템 도입, 어촌마을 특산물 등록·판매 온라인몰 구축을 통해 제철 수산물 판매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올해 방문객 900만 명, 체험객 105만 명, 체험소득 290억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방문객 837만 명, 체험객 100만 명, 체험소득 271억 원을 기록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1000년 역사 해녀어업... 자연 순리 따르는 빨배어업

어업유산 지정, 문화·역사적 가치 알려

유·무형 자원 복합체... 유산 지정 늘려야

진주나 전복 등 조공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 최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성 빨배어업은 보성 별교 갯벌이 넓으면 매우 깊고 빠지는 특성 때문에 빨배가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수단이다. 빨배로 꼬막 등 수산물을 채취한다. 고려시에 강요주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 꼬막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남해 죽방령어업은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 유일의 합정어구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고기잡이 방식이다. 좁은 바다 물목에 Y자형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세워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품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닷물로부터 함수를 제조하는 기술과 소금 내기 및 채염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어업유산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양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손해보험

“농촌 살리자” 생산-판로-창업-금융 전방위 부가가치 제고

농업이 미래다 ⑯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올해 254만 명에서 2025년 201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돼 농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농협 조합원 수는 235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절반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농촌 노령화도 가속화돼 올해 39.9% 수준에서 2025년 47.7%로 올라갈 예정이다.

농협은 이 같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 기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팜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식품 전·후방 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와 자금 지원에 박차를 기하면서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 7월 창조농업지원센터 오픈

스마트팜·6차 산업 활성화 움직임 창조농업추진위 발족 현장 컨설팅

농업 심포지엄 개최해 판로 개척도

수출·자금지원 등 강소농 육성 박차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 이끌 것”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올 3월 취임 당시 스마트팜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센터는 이후 전문가가 자문 등을 거쳐 7월 설립됐다.

지금까지 6차 산업 현장컨설팅 173건과 △3억 4400만 원 규모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6차 산업 현장리더과정 등 현장체험형·회합형 교육 54회(2375명) △농식품 우수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1회 농식품 아이디어(TED) 경연대회 개최(126개팀 신청, 16개팀 선발)와 △사회 창업 아이디어 캠프 개최(41개팀 신청, 14팀 선발) △농업·농촌 가치확산을 위한 청년·대학생 농담(農談) 토크 7회(227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농업지원센터는 농업 경영체 육성과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 우수아이디어 발굴 및 융합·디자인·제작·판로 개척·농업인 교육·컨설팅·인프라 활용·판로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스톱 인큐베이팅 보육시스템 및 현장컨설팅 등을 위해 7월 개원식에서 18개 농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매 분기 회의를 통해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8월에는 농업과 4차 산업 혁명을 주제로 1회 창조농업 심포지엄을 열어 마사요시 혼마 도쿄대 교수의 특강과 아이디어·선도농가 우수사례 론칭쇼 등을 진행했다. 창농·귀농박람회, 농수산 분야 공동소식 박람회, 21회 농업인의 날 등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판로 개척 및 수출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10월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1차 농산물과 6차 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64개 농업경영체가 참가한 케이팜(K-Farm) 페스티벌을 열어 3주간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다. 농협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센터에서 30여 개의 펀테크 기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펀테크 킥오프(Kick-off) 대회를 개최해 모바일 농가 가계부 작성 서비스 등 농업인 실의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이달 중순에는 개원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평가하고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협약기관 담당자, 교육수료생,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담(農談) 토크를 열고 현장의 애로 및 견의사항을 토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판로·창업보육지원 기준과 QR코드를 활용한 스토리 영상정보제공 등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제도화했다. 또 6차 산업 제품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거래(O2O)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유통 등 대형유통매장 내 ‘6차 산업 NH·팜(Farm) 이야기숍’을 개설했다.

농협은 △6차 산업 전문가 과정 교육 수료생 제품 입점 지원 △NH농협은행 내 신도불이 6차 산업 이야기 설치 등 전방위 판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스타트업 창업농의 초기 자금 지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협 공익금융상품 개발·판매를 통한 공의기금 조성과 △귀농·창농 신용보증 3억 원 우대보증 등 강소농 경영체 육성에도 박차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지원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컨설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한 농업인 복정한 씨는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는 농협과 농업지원센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달리”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농업인이 피땀 흘려 길러낸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게 해줌으로써 절박한 농심(農心)을 열어주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업지원센터를 강한 농협 육성의 정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조기에 여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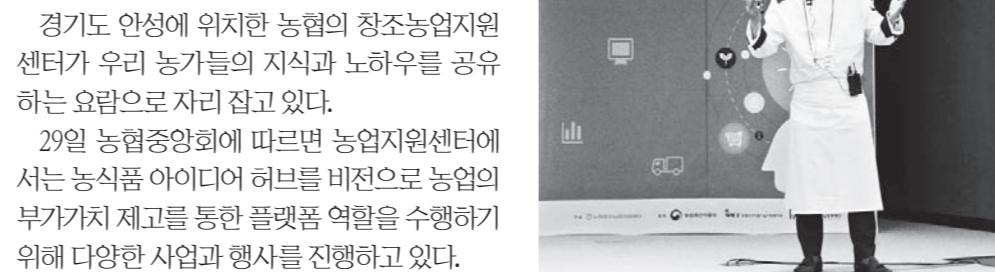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 오른쪽)이 이달 13일 경기도 안성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농업에 파란을 일으켜라! 6차산업 펀팅·업 농담(農談) 토크’에서 정부, 농업인 등 250여 명의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농가 아이디어 발굴 ‘청년 창업·농촌 신산업화’ 선도

‘농식품 창업 캠프’ ‘아이디어 경연…’ 등 농업지원센터서 다양한 사업·행사 진행

아이디어·기술 결합해 농업 경쟁력 확보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월 ‘농업, 6차 산업화로 친지개벽하라’라는 주제로 ‘농식품 아이디어(TED) 경연대회’를 열었다.

농협은 지난달 29~30일 농업지원센터에서 ‘농업에 파란을 일으켜라’라는 주제로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 캠프 결선을 실시했다.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 캠프는 대학생과 청년의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술과 결합시키기 위한 경진 대회다. 이를 통해 농협은 미래 청년 창업농 육성과 농업·농촌의 신산업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총 41개 팀이 지원했다. 1차 심사에서 14개 팀이 선발돼 결선에 진출했다.

심사별표 결과 대상은 ‘위치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농산물 공유 플랫폼’을 주제로 아버지에게 유니브팀 팀이 선정돼 시상금 10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2팀과 우수상 2팀에는 농협중앙회장 표장과 시상금 각 500만 원, 각 250만 원씩 주어졌다. 청인상 9팀에는 각 1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달 6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이뤄졌다. 농협은 농업지원센터의 ‘교류·컨설팅·사업화’ 원스톱 보육지원시스템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 경영체

로 수상자들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0월 27일에는 ‘농업, 6차 산업화로 친지개벽하라’라는 주제로 1회 농식품 아이디어(TED) 경연대회 결선이 농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는 농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 유망 아이디어를 공모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6명이 지원해 심사에서 16명이 선발, 결선에 참여하게 됐다. 심사별표 결과, 대상은 ‘쌀을 활용한 항노화, 치매예방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글로벌 산업화’를 주제로 아버지에게 유니브팀으로 시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 3팀(시상금 각 1000만 원)과 우수상 2팀(시상금 각 500만 원)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농협은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컨설팅·사업화 원스톱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6차 산업 혁신과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경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재료가 정직해야 맛도 정직합니다.”

국내산 메밀을 원료로 정직하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리를 올리겠다는 일념,

(주)봉평농원의 이유있는 20년 고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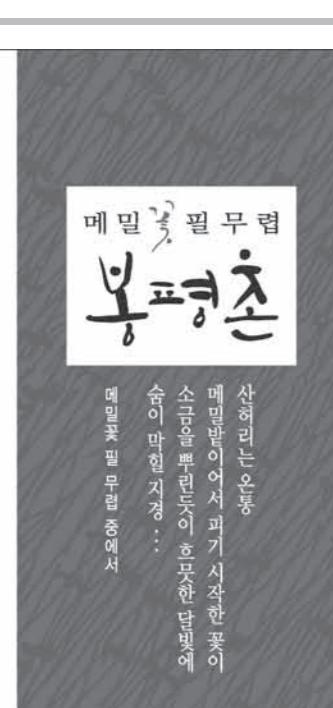
앞으로도 정직한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 부침류 : 메밀부침가루, 칼수수부침가루, 칼수수부꾸미가루, 김자부침가루, 김자수제비가루, 메밀국수가루, 메밀가루 면류 : 메밀국수, 메밀국수, 메밀비빔국수, 메밀소바, 메밀칼국수, 칼수수국수, 메밀냉면, 메밀비빔면 기타 : 메밀미식가루, 칼수수국수, 메밀쌀, 메밀차, 통메밀차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 수상



메밀로
만들



구조조정에 파업 전문… 증권가 우울한 세밀

**최근 3년새 4명중 1명 떠나… 점포축소·희망퇴직 잇따라
새해에도 ‘몸집 줄이기’ 지속 전망… 노사간 내홍 커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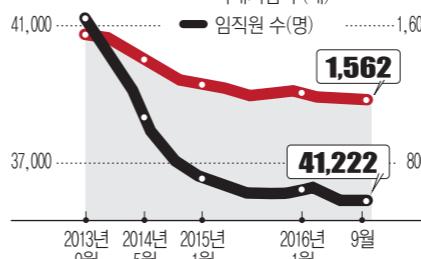
최근 3년간 네 명 중 한 명을 떠나보낸 증권가가 우울한 세밀을 맞고 있다. 새해에도 사측의 단협 해지로 568일간 총파업을 앞두고도 구조조정이 계속되는데다

을 파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2012년에도 사측의 단협 해지로 568일간 총파업을 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리테일 부서 구조조정을 두고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사측이 ‘리테일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조와 협의 없이 성과급 식감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원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TF는 33개 점포 중 57%에 해당하는 19개가 부산(9개), 울산(4개), 경남(6개)에 놓려 있어 점포 축소가 필요하

**최근 3년간 분기별 증권사
임직원 및 지점 수 추이**

※출처: 금융투자협회



망퇴직 과정을 거쳤다. 대신증권과 NH 투자증권도 각각 100명 이상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증권업계 주요 회사들이 잇따라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내년 증권사 인력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인력 감소는 이미 수년째 진행 중이다. 2011년 말 4만4000명이 넘던 증권사 직원 수는 2014년 3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2분기(4~6월)부터는 3만500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3년 1500개가 넘던 국내 증권사 지점 수도 올 9월 기준 1179개로 줄었다. 하이투자증권은 물론이고 하나금융투자도 서울 선릉역 인근 지점 4개를 합쳐 통합점포를 만들기로 하는 등 대부분 증권

사가 지점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인력 축소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신증권이 희망퇴직 이후 3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지점 발령 낸 것을 두고도 사실상 또 한번의 인력 축소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희망퇴직, 성과기준 높이기, 무리한 지점발령 등으로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인력 감소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인원이 각각 2만5000명, 8000명 수준인데 계약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머지않아 비율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상장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 지연팬 제재금 10억

내년부터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제재금의 상한선을 5배로 높였다. 지난 9월 한미약품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상장사들의 늑장공시 관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거래소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재금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하게 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황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코네스시장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기존 공시 내용을 정정해 변경 시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두선 기자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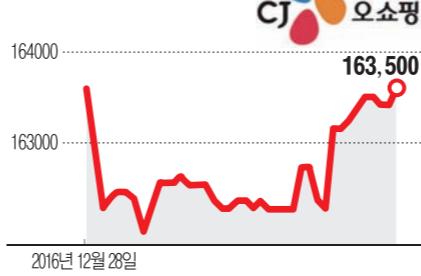
현대홈쇼핑 주가 추이



GS홈쇼핑 주가 추이



CJ오쇼핑 주가 추이



엉터리 통계에 흠크핑株 ‘올상’

(현대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

홈쇼핑 3사 주가가 여신협회가 발표한 엉터리 통계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28일 주식시장에서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흠크핑 3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GS홈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1.4% 하락한 17만2000원에, 현대홈쇼핑은 1.32% 내린 11만2000원에 각각 하락률을 마쳤다. CJ오쇼핑의 경우 오후 들어 하락세를 회복해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1.10% 떨어진 16만1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홈쇼핑 3사의 이 같은 주가 하락은 전날 발표된 통계수치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 ‘11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11월 흠크핑 업종의 전체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 같은 달

4144억 원)보다 63.3% 추락한 151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측은 해당 통계자료에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민들의 뉴스 시청 증가로 주요 흠크핑 업체의 매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그럴듯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하루 흠크핑 3개사의 시가총액 감소분은 약 460억 원에 달했다. 업계는 분통함을 감추지 않았다. 흠크핑업계 가운데 연간 취급액이 3조 원이 넘는 회사가 4군데가 넘는데, 여신협회가 터무니 없는 수치를 여과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 흠크핑 업체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공신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여신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민주주의의 수호자

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1주기 최초의 대작 평전 출간!

김영삼 평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참담한 국정농단 시국,
큰 지도자, 큰 정치인이 그립습니다



김삼동 지음 | 696쪽 | 깊은 나무
값 33,000원

“김영삼은 현대사다”

1937년, 하숙집 책상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 붙인 깨까머리 중2소년이 있었다. 그로부터 55년 후, 최연소 20대 의원 30대 야당 원내총무, 40대 야당 총재로 대성하여 50대 대통령 후보를 거쳐 마침내 60대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3선 개헌 반대투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독재에 맞서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 서 정치기록이 되었으며,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며 3당합당을 광행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금융실명제’ 실시,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 척결, 평시작전통제권회수, ‘역사비로세우기’ 등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펼쳐 군사정권 32년의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뚜렷한 죽적과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임기 말의 IMF학란을 막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인이다운 정치인’의 표상이며 역사의 현장을 온몸으로 겪어온 한국 현대사 그 자체의 거인(巨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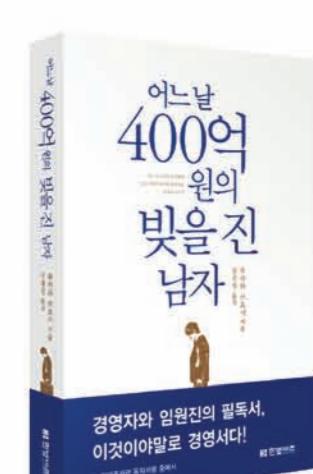
이 책은 2015년 11월 22일 서거한 고 김영삼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에 대한 평전이다.

문의: 02-322-6709

소설보다도 가혹한 현실, 그래도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

16년간 그가 밟았던 한마디,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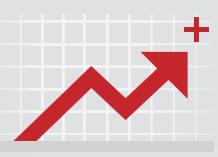
유자와 쓰요시 지음 | 정세영 옮김
244쪽 | 한빛비즈 | 값 13,000원

“빚을 다 갚으려면 80년은 걸릴 겁니다”
엄청난 불행을 물려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

대기업에 다니며 장밋빛 인생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부도 직전의 회사와 4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한 남자. 그는 빚을 다 갚으려면 80년은 걸릴 것이라는 운행의 선고를 받고 16년간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분투한다. 16년의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다시 회사를 일으키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물론, 창업을 꿈꾸는 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상상조차하기 힘든 내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머리말 중에서

문의: 02-325-5506



매물 나온 경남에너지, 시장 찬바람에 일단 후퇴?



유력 후보 불참에 예비입찰 매수가 최대 3000억 차이 나
매각자, 유가 상승에 매출 기대감도… IB업계 '무산' 제기

경남에너지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29일 IB업계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것은 경남에너지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들의 인수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입찰에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IMM PE, H&Q아시아페시피

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반면 당초 참여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KDB인프라자산운용, GS에너지는 예비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작 단계부터 주요 인수 후보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의 본입찰 원주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경남에너지의 본격 실사 전이기는 하지만 매각자 측과 매수자 측의 가격 격차는 최대 3000억 원 가량 차이나고 있다. 매각자 측은 최대 6000억 원에 경남에너지를 매각하려 하지만 인수 후보들은 3000억 원대를 적정 가격대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예비 실사 중에도 가격 차이와 관련한 분위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의 후보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각자 측도 경남에너지의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까지 회사를 팔지는 않을 것

으로 관측된다. 현재 낮은 수준의 유가가 상승하면 경남에너지의 요금기저도 2018년부터는 증가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회사는 정부의 적정투자보수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요금기저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이번에 매각 되는 경남에너지 지분은 상원켐트루(30.97%)와 2대 주주인 앵커케리티파트너스(27.76%)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비롯 자사주를 포함한 지분 96.5% 규모다. 매각주관사는 JP모간체이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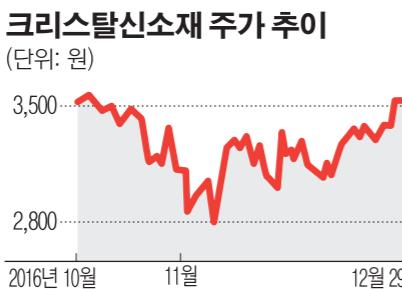
크리스탈신소재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연장”

만료 예정 내년 1월서 2018년으로
중국 기업 지분 매각 리스크 해소

내년 1월 상장 1년을 앞둔 있는 크리스탈신소재의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최대주주인 다이자릉 대표이사가 상장 시 1년으로 설정되어 있던 본인 지분 38.2%(주식수 2353만3293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 6개월에 6개월의 자진보호예수 기간을 더해 1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보호예수 해제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최



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리스크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이자릉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

유 관심이 없다”며 “그리고 한국 투자가 우려하는 중국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걱정은 기우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크리스탈신소재의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공모 전 설정되는 보호예수는 한국에 턱결제원에서 관리되는 것과 달리, 공모 후의 자진보호예수는 계좌를 설정한 증권회사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된 자진보호예수는 기존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 시점인 2017년 1월 27일 이후 증권사를 통해 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새로운 만료 예정일은 2018년 1월 27일이 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이치엘사이언스 ‘밀크씨슬추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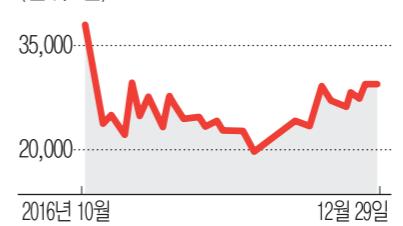
산자부 일류상품으로 해외시장 공략

건강기능식품 ‘닥터슈퍼칸’

3년 연속 브랜드인지도 1위

해외 매출 2배 이상 기대

에이치엘사이언스 주가 추이 (단위: 원)



바이오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기업 에이치엘사이언스의 ‘식용 밀크씨슬 추출물’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으로 회사는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치엘사이언스가 사용 밀크씨슬 추출물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은 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닥터슈퍼칸이다. 닥터슈퍼칸은 3년 연속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 추출물) 브랜드인지도 1위 제품이며, 2011년 출시해 누적 매출액 950억 원 기록했다.

에이치엘사이언스의 닥터슈퍼칸 등 식용 밀크씨슬추출물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됨으로써 닥터슈퍼칸의 재형을 다변화시키고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국내시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식용 밀크씨

슬추출물과 여성 갱년기 건강과 피부보습의 가능성을 기반 기능성 석류농축액 등 2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일류상품은 정부가 수출품목의 다양화, 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제도로 2001년 출범 이후 국내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업종의 다변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확대와 미래 수출 동력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차세대 일류상품은 7년 이내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한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다.

이해연 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향후 국내 매출 향상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진출을 통해서 닥터슈퍼칸의 매출을 단기간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필로시스, 제2공장 준공
해외 수출시장 공략 강화

혈당측정기 전문기업 필로시스가 제2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해외 수출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28일 필로시스는 군산 오식도동 자유무역지역에서 제2공장 준공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생산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건립된 이날 준공식에는 이진용 필로시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의료기기조합 박희병 전무, 군산시청 조경수 국장, 수자원공사 이태교 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필로시스 제2공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수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시공에 들어갔다. 올해 초부터 중국, 멕시코 등 주요 해외 거래처에서 제품 등록과 인증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그에 따른 해외 수출설적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2공장에는 연간 생산능력 700억 원 매출 수준인 최대 360만 박스 규모의 생산라인 2개를 구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GOx 및 GDH 혈당, 혈액글로빈 센서스트립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품질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필로시스 대표는 “제2공장 준공은 필로시스가 해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철저하게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미국 FDA와 유럽의 CE, 중국 CFDA 등 세계적인 품질 인증 및 허가를 획득한 필로시스의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 매출 3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필로시스는 지난 7월 중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KDL과 약 1000억 원, 이달에는 중국 연태공사와 약 300억 원, 멕시코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약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러시아, 터키 등과도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추진해 해외 수출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내 시장에도 협당기를 론칭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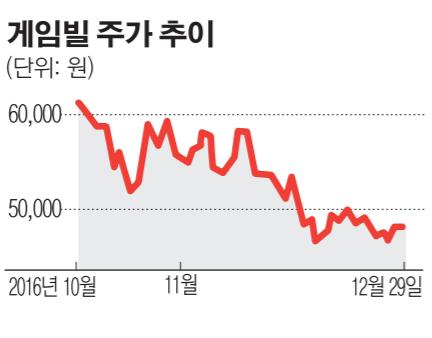
게임빌 ‘제노니아 시리즈’ 지구촌 곳곳서 함께 즐겼다

트렌드 맞춘 후속작 연속 인기행진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6000만 돌파

모바일 게임 제작 및 서비스 업체 게임빌은 간판 게임인 ‘제노니아 시리즈’가 글로벌 누적 6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08년 처녀작 출시 후 장정 8년간 동·서양에서 동시에 사랑받는 모바일 RPG로 통틀어서 일군 성과”라고 평가했다.

게임빌 ‘제노니아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7개의 타이틀로 제작된 글로벌 히트작이다. 피처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대중



사상 최초로 미국 애플 앱스토어 전체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어 출시된 후속작들도 꾸준히 호응을 얻었다. 최신작인 ‘제노니아S: 시간의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도미카, 공화국, 쿠웨이트,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등 10여 개 국가 오픈 마켓에서 전제 게임 매출 상위 10을 차지했다.

‘제노니아 시리즈’의 장수 비결로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춘 꾸준한 진화가 꼽힌다. 시리즈 특유의 게임성은 유지하면서 방대한 스토리, PvP(플레이어 VS 플레이어)를 비롯한 실시간 콘텐츠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화성산업, 3년 만에 배당 7배 ‘껑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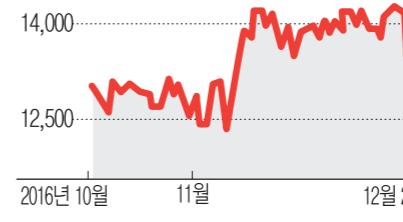
주가 1만4000원으로 4.8% 올라
내년 배당총액 82억원 넘을 듯

실적추이와 배당수익으로 화성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내년 3월에 올해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당금은 주당 680원이다. 배당대상 주식은 현재 발행주식 1245만800주 중 자사주 34만638주를 제외한 1211만62주다. 이에 따라 배당총액만 82억원을 넘어서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배당 성향과 비교해 7배가량 늘어나는 등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현재 주기가 1만4000원인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4.8%의 수익률이다. 게다가 올 초부터 투자를 한 중장기투자자들은 시가 수익뿐만 아니라 최대 6%의 시가 대비 투자 수익을 동시에 남기게 되는 셈이다.

화성산업은 지난 2014년부터 배당금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억5300만원, 2015년 48억4400만원, 2016년 62억3500만원 등이다. 김우람 기자 hura@

화성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쳐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당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선 화성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138억원에서 이듬해 212억원, 2015년 242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인 이인중 회장의 선친의 주식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 등도 당분간 배당 성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인중 회장은 지난 2015년 고 이운석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상속 받았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5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인중 회장은 국세청에 보유 주식 3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현재 매년 일정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인중 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은 현재 12%수준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셀루메드 ‘라퓨전DBM’ 美 FDA 심사 철회

“동물실험 보완 후 재접수”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제조업체 효성오앤비는 박태현 대표이사가 회사주식 5110주(0.09%)를 장내매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제조업체 효성오앤비는 박태현 대표이사가 회사주식 5110주(0.09%)를 장내매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FDA를 통족시키기 위한 생체적 학성시험, 안전성 시험, 성능 시험 등을 모두 종족

SAMSUNG

2017년

시인이 되자

갤럭시와 함께

**Galaxy S7 edge | S7 Gear S3*** 오렌지 레드 컬러 스트랩 별매